

한국 대학생의 학생운동 이념 변천에 관한 정책 연구* 학생 운동에 관한 유인물, 전단의 내용별 계량 분석과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이병철·박양수
행정학과 전자계산학과

<요 약>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해 한국에 있어서의 학생운동의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비교분석적 시각에서 구미의 학생운동의 양태와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학생운동의 흐름을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 실증적 접근으로 내용별 계량분석 방법과 현지조사를 통한 질문지조사방법을 사용하여 학생운동의 흐름의 맥을 잡아 보려고 시도하였다. 여기에선 이러한 연구분석과정에서 도출된 학생운동의 흐름과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특성 및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처방전으로 문제해결의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한국학생운동의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제기된 몇가지의 특징을 평가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 일제시대부터 학생운동의 효시로 기산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학생운동은 해방이후부터라고 사료된다.

둘째, 해방직후의 좌우학생운동은 과도기의 이념적 혼란에서 빚어진 것으로서 좌우이념대립이 가져온 산물이라 할 수 있겠고 50년대는 관제동원의 결과로써 학생들에게 소외의식을 느끼게 한 시기로 평가된다.

셋째, 1960년대는 민주주의, 헌법, 그리고 자유, 평등, 진리, 정의 등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었고 70년대에는 민족주의, 자유, 투쟁, 혁명이며 80년대는 경제, 매관, 노동, 투쟁, 혁명등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60년대가 다소 당위적이고 이상적인 입장에서 민주주의나 자유를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표현하는 헌법에 관한 문제에 집착한 반면 70년대부터는 물론 민주주의나 자유를 이상으로 하되, 투쟁이나 혁명을 수단으로 한 현실참여라는 점을 학생운동이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하며 80년대에 와서 이론이 보다 구체화되어 직접 현실참여의 목적과 연관된 매관, 통일 및 노동문제에 관해 쟁점화하여 들고 나오고 있고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쟁취키 위한 수단도 이상적이거나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투쟁이나 혁명을 수단으로 하는 좌파적 성향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60년대와 70년대는 주로 민주주의, 자유, 독재, 부정부패, 선거등이 주요쟁점으로 제기되나 80년대에 와서는 민주주의, 매관자본, 노동문제, 통일, 투쟁, 민족자결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모색으로 나오고 있고 여러가지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문제제기가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학생운동의 방향이 어느 한 특정한 이상적 쟁점의 범주에서 탈피하여 현실적용

*이 논문은 아산사회복지 사업재단(鞍山社會福祉事業財團)의 1988년도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적인 쟁점으로 다원화하고 있음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1960, 70년대가 다분히 자유나 평등, 진리, 정의 등을 구가하며 독재정권의 타도를 통한 궁극적인 민주사회건설이라는 다분히 낭만적인 학생운동의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80년대는 이러한 낭만성에서 벗어나 외세축출과 자본주의체제의 제모순에 관한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60년대, 70년대는 학생운동의 이념적 이론무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림과 학림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을 추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의 시각과 방법론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어 이것을 균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이념논쟁이 뒤따르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생운동의 방향성이라 할 수 있는 학생운동이념이 창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적 흐름은 「무림-학림」, 「야비-전망」, 「깃발-반깃발」, 「C-N-P논쟁」들을 거쳐 80년대 중반의 「삼민투」 그리고 「민민투」, 「자민투」간의 이론 논쟁은 좌파적 사회주의운동의 이론적 기초형성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구미의 학생운동의 흐름을 살펴볼때, 대개 학생운동의 진양지는 학내문제가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여덟째, 내용별 계량분석을 통해 유인물을 분석한 결과 문헌분석에서 제기한 학생운동의 흐름의 맥이 많은 부분에 걸쳐 일치하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론적 접근을 통한 문헌분석에서 발견된 사실들이 실증적 검증과정을 거쳐 사실로써 확인되었음을 의미하며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제시된 한국에 있어서의 학생운동의 흐름속에서 제기된 새 특성은 나름대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아홉째, 현지조사를 통한 질문지방법도 현재의 학생들의 상당수가 소위 운동권학생들의 학생운동쟁점에 동감을 표하며 나아가선 이들과 유사한 시각으로 사회나 국가, 그리고 학교를 쳐다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운동권의 이념적 색채에 채색되어지고 있으며 그들과의 심리적 공감대도 서서히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 원인이 바로 체제나 사회제도의 문제나 모순이 이를 더욱 부채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한국학생운동의 흐름상에서 도출된 특징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 다음으로는 이에 근거하여 향후 학생 운동의 방향이 어떠한 식으로 전개되어 나아갈지에 대한 전망을 해보기로 한다.

첫째, 90년대에도 학생운동의 이념적 논쟁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그리고 투쟁은 더욱 강성을 띄게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학생운동의 이념투쟁노선, 전략·전술들이 보다 노골적이고 표면화될 것이다. 민주화 추세에 따른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판단된다.

셋째, 학생운동의 쟁점으로는 군부독재타도, 파쇼타도, 외세배격, 민족자주통일, 매관자본가 타도, 계급타파 등으로 집약될 것이나 이 이외의 여러가지 쟁점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것이다.

네째, 주된 쟁점은 독재파쇼정권의 타도라는 입장에서 어느정도 선회하여 민족통일, 외세배격, 매관자본가 타도등으로 귀착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학생운동의 흐름이 80년대 초, 중반엔 과격하고 급진적인 강성을 띤 내용으로 점철

되었으나 8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쟁점자체가 다원화되고 학내문제를 포함한 보다 이론을 의식한 학생운동으로 방향을 정립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전체운동에 대한 부분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은 전위세력으로서의 기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으로 학내학생운동에 관해 전망을 해보았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한국학생운동의 특성과 전망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제기해 보기로 한다.

첫째, 무엇보다 정치적안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경제적인 분배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이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의 가치관정립을 위한 이념이나 생활신조가 창출되어야 하고 이것이 생활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나 기업이 솔선수범을 하여야 한다.

넷째, 국민들이 보다 올바른 방향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북방문제나 남북문제를 선결조건으로 하는 통일방안이 국민의 합의위에서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유관관계기관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의 문세를 대학자체의 문제만으로 축소시켜 생각하고 대응하는 발상에 대한 전환이 필요로 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데 대학의 본부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수 그리고 정부, 기업, 유관관계기관의 관심과 성원등 엄청난 노력이 경주되어야 될 것이다.

여섯째, 문세화된 운동권학생들을 극단적으로 고립화시키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이들의 운동동기들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요구를 사전에 해소시켜주는 방안을 개발하여 이들의 의식화를 예방함으로써 이들의 운동역량을 약화시키고 지나친 대응전략을 지양하고 보다 예방적 차원 그리고 시의적절한 적실성높은 대응전략을 사용하여 대중요법적 일회적 대응전략에서 야기되는 역기능을 최소화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일부 불순한 세력이나 재야세력은 전략전술이나 이해타산으로 순수한 동기의 학생운동을 왜곡화시켜서는 안되며 정부는 과감성과 소신을 가지고 이러한 학생운동의 왜곡화를 극소화하는데 전력하여야 할 것이다.

A Study on the Changing Patterns of Student Movement and Ideology of the Korean University

Lee, Byung-Chul, · Park, Yang-Soo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Dept. of Computer Sciences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changing pattern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movement and students' ideology with the field survey, and content analysis of leaflets and pamphlets. However, some comparative analysis will be utilized for clarifying Korean student activists behavior and their motives by illustrating those patterns of British, German, French, American and Japanese students.

Generally speaking, Korean university student activism began in early periods of 1920s during Japanese colonialism for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along with anti-Japanese patriot independent movement. It was very natural that some students had followed socialist ideology and others had pursued nationalist strategy as their effective anti-Japanese struggle approaches.

However, the Korean student movement could find its unique pattern from the beginning of Korean independence day, 1945. The earlier student activists organized student networks to fight against socialist student faction who stood for North Korean regime for its cause. The student organization thus, made coalition with government as the mobilizing forces against North Korean Communist aggression, especially during Korean War.

Therefore, the student movement had been engaged in enhancing democracy and human right affairs. This phenomena had been continued until 1970s along with ardent dissidents groups for restoring democracy during President Park Chong-Hee and Chun Doo-Hwan. However, it has been very unique reality that leftist oriented student organizations with small scale but intensive activities were slowly emerged by exposing their slogan of anti-Facist military, anti-Americanism and anti capitalist ideas.

The latest student organizations with less support and very fragile basis, openly demonstrate pro Kim Il Sungism and show determined efforts to deny capitalist economic system.

The leftist student movement in the 1980s brought about divergent organizations mainly because of their ideological difference as well as different views in interpreting current Korean situation.

The leftist ideologies were thus, developed along with the factions such as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PDR),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NLPDR), and Congressional Assembly(CA), etc.

The common themes exist in anti-imperialism, anti-Americanism, anti-Capitalist joint venture and anti-Facist military regime. The typical tactics of these leftist student movement begins with their demands concerning university reform—the anti-bureaucratization and their pressure to let the university authorities denounce the current social and political irrelevant systems and to let the university faculty and student join their causes.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heavily influenced with the leftist student ideology have clearly shown their liberal and even more socialistic attitudes, especially in the areas of

unifications, political system, their views toward the United States, etc.

The liberal middle class concept which is easily seen in other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consists of early forties, thirties and twenties has shown different thoughts on various Korean social and economic issues. Most of them they think the old aged concept of cold war experience is all gone and more active to express their wish for Korean unification with less ideological inclination. Moreover, they began to perceive North Korea objectively and positively consider the American military withdrawal for the time being. It is even understandable that they fully agree with idea of mixed system as the alternative of Korean unification system. They even allow the socialist party to operate in Korean society unless they are not basically violent in denying parliamentary system and open competitive market economy.

This liberal middle class idea plays a balanced leverage toward either leftist liberals or rightist liberals. To widening of liberal middle class and conversion of leftist and conservative groups, the following policy options are required to be considered.

The current political instability and political irrelevance should immediately cleared and thus, paved a way to harmonize all the political ideological struggles and factions. Moreover, the low income class should be given more appropriate opportunity to live with decent lives with active government welfare policies. The civic political culture where maximum political participation will be able to be given should provide free and open environment to express various issues and thus fulfill the consensus, especially in the area of unification, etc. Moreover, it is also university community to generate more academic environment where young students could engage in their academic works more seriously and work out their community service as out reach activitie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생운동의 촛점이 어떠한 곳에 주어졌든지 감히 기성세대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구질서와 이를 위요한 체제의 개혁을 도모코자 하는 학생들의 변혁의 의지는 그것이 지니는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이면속에서 제대로의 평가를 받지 못한채 묻혀져 왔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학생운동이 역사의 정면에 돌출하게 되는 것은 80년대 들어와서부터이며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논거는 이 시대에 와서 체제투쟁으로 격렬성이 고조되고 85년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전후로 학생시위는 국내외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 이념에 대한 용공시비는쟁마져 일어나 국회나 정치단체·정부당국과 학생들간에 정치쟁점이 되고 여

론과 사회의 주요관심사로 부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학생운동에 대한 사회각계의 재평가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고 또한 문제의 인지와 더불어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처방전이 여러가지 양태로 우후죽순식으로 제기되고 집행되어졌던 것이다. 일제하의 반식민지운동에서 출발, 1940년 좌·우익갈등 및 대결, 1960년의 학생관제동원, 1960년 4.19, 한일협정반대, 1970년 3선 개헌 반대, 유신반대 등으로 연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한국학생운동은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역기능요소의 과감한 제거와 낙후된 정치발전에 갈등을 느끼고 여론을 조성시키며 신랄한 비판과 행동을 고조시키고 있다. 더구나 80년대에 들어와서는 70년대 이전의 학생운동이 이론과 조직을 결여한 낭만적인 운동이었다고 자성하고 새로운 사상체제와 조직전술로 좀 더 과감한 투쟁노선을 채택하여 불세비즘, 마오이즘, 제3세계 민족해방전술 등의 운동논리를 수용하고 보다 세련화되고 강경한 투쟁노선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투쟁노선도 학생운동의 이념변천에 따라 변모되고 있는데 변화와 투쟁의 대상이 되는 체제의 벽이 두꺼울수록 좀 더 과격하게 정립되게 되어 유신치하에서의 혁명전술인 시민민주주의 혁명론은 거의 퇴색하게 되고 불세비즘, 반제민중민족 해방투쟁으로 연결되어 혁명이념의 구현운동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제 학생운동은 소수이긴 하나 강도높은 개인적 신념과 전문조직으로 자유정의를 부르짖는 아마추어 차원이 아닌 프로페셔널의 직업운동가를 배출하는 혁명전위대, 대중투쟁의 선도대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변하는 젊은 세대의 운동이념과 사상적 배경, 운동전략 등의 내용과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다.

2. 연구의 목표

본 연구는 한국대학생의 학생운동의 흐름을 시대별로 분류하고 시대에 따른 학생운동의 변천과정과 학생운동의 주요쟁점 그리고 이것을 낳게 한 중요한 이념이나 사상적 배경, 운동조직관, 투쟁전략 등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기 위한 정책적 좌표를 제시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우선 상기의 연구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키 위해 연구의 범위는 1950년대이후로 국한시키려 한다. 물론 학생운동이 일제하에 없었던 것은 아니나 학생운동의 성격이 다르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학생운동과 직접적인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본 연구에서 생략토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선 1950년대 이후의 학생운동을 주분석대상으로 삼으며 특히 1960년 4.19이후의 학생운동에서부터 1988년까지의 학생운동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를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우선 한국대학생의 학생운동이념변천과정을 이해키 위해 관련문헌분석을 통해 개관하고 비교분석적 시각에서 한국대학생의 학생운동이념변천을 보다 심도깊게 이해키 위해 과거 우리와 비슷한 양태의 학생운동을 경험했던 일본 및 구미의 학생운동변천과정과 이념의 내용들을 역시 관련문헌분석을 통해 고찰하여 공통적 속성을 도출할 것이다. 다음 이러한 문헌분석에서 얻은 결과의 타당성을 보다 높게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이 작성하여 배포시킨 선언문이나 전단, 유인물들을 대상으로 내용별 계량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여 분석함으로써 문헌분석 결과를 보다 명료화하고 객관화 시키도록 한

다. 그 다음, 현재의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에 대한 시각을 조망해 보기위해 현지조사방법인 질문지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백분비분석과 χ^2 교차점검(CrossTabulation)의 통계처리를 통해 분석하여 앞의 문헌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해 정립된 학생운동이념의 흐름을 현재의 시기까지 연장토록하여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되는 결과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II. 한국대학생의 학생운동 이념변천

1. 학생운동의 일반적 의미

학생운동에서 비롯되는 위기는 이미 전세계에 일반화되었으며 이러한 기존질서에 대한 저항 및 체제적 도전은 학생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하층민으로 분류될 수 있는 노동자나 농민들이 이미 이와같은 저항을 시도하였음은 역사를 통해 자명한 사실로 확인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맑시즘과 같은 혁명적 사상체계가 출현하여 이미 이 지구의 절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에 관심이 경주되는 것은 그들이 시니고 있는 순수한 이성과 이해관계와는 관계없이 기성적 제도의 모순을 지적할 수 있고 그러한 모순 및 갈등해소의 방안이 단순한 물리적 폭력이 아닌 지성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¹⁾

대개 일반화된 시각은 학생운동을 사회세력의 한 표현 그리고 사회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운동으로 보는 입장이며 이러한 운동의 표현의 실체 즉 내용은 정치이념형성(political ideology formation)을 주권자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치이념이란 특히 거시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의미를 뜻하는 것으로서 학생운동의 핵을 정치적 입장에서 이해하려 하는 것이다.²⁾ 이러한 학생이라는 사회계층의 특징으로 몇가지를 제시할 수 있겠는데, 그 중, 먼저 청년문화의 형성을 들 수 있다. 인생의 주기에서 청년기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속성인 이상주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심리적 특성을 토대로 형성된 청년문화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생활조건에서 비롯되는 특별한 관념성이 학생들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다. 대부분이 자신의 물질생활을 부모에게 의존하므로 생각이나 가치판단이 일상적인 물리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은 편이고 면학중에 있으므로 사회제반사항에 포괄적

1) 학생운동을 사회, 제도적 변혁을 촉구하는 사회내재적인 순수한 자발적인 힘으로 표현하는 입장도 있고 또는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질병으로 보고 이를 호전적인 입장과 시각에서 정리해 보려는 움직임도 있는것은 학생운동이 지니고 있는 양면성 즉, 순수한 이성을 통한 체제개혁의 지성적 측면과 노동과 같은 야성을 통한 기존체제개혁의 폭력적 측면을 제대로 균형되게 보지 못하고 어느 한 측면에서 왜곡되게 정의하고, 이를 어느 한 입장에서 정리해 보려는데서 야기되는 논리적 귀결이라 볼 수 있다.

Julian Nagel(ed.), *Student Power*(London : Merlin Press Ltd., 1969), 서문.

2) Joseph Newman, "Education and Politics in Britain", J.Nagel(ed.), *Student Power*(London : Merlin Press Ltd., 1969), p.2.

인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식을 지니려고 스스로 노력한다. 이 때문에 그 시대의 사회적 또는 정치적 상황을 가장 예리하게 관념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다음 다양한 이데올로기의 병존을 지적할 수 있겠다. 학생들의 출신성분이나 계층은 대 자본가, 의사, 봉급생활자, 노동자 등의 자녀일수도 있어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생활조건에 나름대로의 기반을 지니고 있으므로 온갖 이데올로기가 병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 존재하는 사상적, 정치적, 종교적인 다원적인 그룹이 학생층 속에도 존재한다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운동의 근원을 교육의 자율성에서 찾으려한다. 사실상 학생운동의 역사적 연원을 고려해 볼 때 학생운동의 바탕이 된 사상적 지주대는 바로 교육이었다. 즉 오늘날의 대학교육은 교육방법이 전문화된 기술교육이라는 면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반적 교양과 철학 또는 사상을 폭넓게 공부하고 사유하는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의 일면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학생스스로의 사색과 사변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철학적 사유나 정치이념, 사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 그리고 행동의 자유분방성을 보장하는 문화 풍토는 그만큼 정치적 행동의 선택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었다 할 수 있다.

2. 한국학생운동 이념변천의 과정과 평가

일제시의 반식민지, 자주독립투쟁의 선봉을 지켜왔던 학생운동은 해방후 5년간은 좌, 우투쟁으로 일관되었고³⁾ 50년대 들어선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학도의용군참전운동으로 변화하였으며⁴⁾ 종전과 더불어 학생운동은 사실상 학도호국단영역내에서의 인위적인 동원의 성격으로 변모되었다.⁵⁾ 이러한 동원이 당시 이땅의 상황에 미루어 볼 때 그 의미가 실제로 충분하였긴 했으나 동원의 방법, 범위 등에 있어서는 인위성에서 자발적인 것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시키지 못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율성으로부터의 소외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학생의 자율과 대학의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1956년에는 학도호국단철회지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며 이 시기에 지하이긴 하지만 소수의 학생들이 사회주의사상을 학습하는 「신진회」라는 스터디 그룹(study group)을 서울대에 조직하기도 했다.⁶⁾ 60년대 들어서선 한국학생운동의 모델이 되고 있는 4.19가 부정, 부패에 항거하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주장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키위한 시민혁명의 성격을 띤 민주화운동으로 불길처럼 타올랐으며 그 결과 자유당 정권은 붕괴하였고 뒤를 이어 정권을 장악한 민주당정부는 민주체제성숙의 기반이 조성되지

3) 이철승, 「학생운동과 반공」(서울:북한, 1972), 210-212면. 한국 반탁·반공 학생운동 기념사업회, 「한국학생전국운동사」, (서울:1986), 134-135면.

4) 이재오,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서울:형성사, 1984), 116면.

5) 학생동원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진통일학생총궐기대회(1953.4.22), 휴전회담결정반대시위(1953), 미군철수반대시위(1954), 대한학도반공궐기대회(1956), 북한동포궐기촉진대회(1956), 야당의 대통령 경고안궐기대회(1957), 인도네시아 반공혁명군 지원궐기대회(1958), 재일교포복송반대시위(1959), 이박사대통령 재출마 요청궐기대회등이다.

이재오, 「상계서」, 117면.

6) Sung Joo Han, *The Failure of Democracy in South Korea*(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p. 198.

않은 상태에서 정권의 취약성과 학생운동의 무절제, 보수적 반공이념이 6.25전쟁심리로 가속화된 상태에서 방향없는 배회를 하다 5.16 군사혁명을 맞이하게 된다. 5.16군사혁명이 4.19 정신을 계승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던 학생들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제현상으로 실망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6.3 한일국교정상화반대시위 등을 통해 이를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도 좌절이 되고말고 1969년 10월 1일 3선개헌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실패된 시위운동이 된다. 그러나 60년대의 학생운동은 민주주의이념을 4.19를 통해서 성립하고 6.3한일국교정상화반대시위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반외세 민주자립의 이념을 구축하여⁷⁾ 한국 학생운동의 기본골격을 완성하였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70년대에 와서는 좌경적 성향의⁸⁾ 운동권이 태동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학생운동가들이 대학을 떠난 후 축적된 역량을 각계 사회영역에서 펼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70년대는 유신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운동권(학생, 노동자, 재야)으로 그 자생과 운동의 확대 재생산구조를 열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70년대에 나타난 학생운동은 74년의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합회」(약칭 민청학련)사건과⁹⁾ 76년 2월에 태동한 것으로 알려져있는 79년

7) 4·19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지녔다면 6.3반대시위는 반외세 민족자립의 성격을 포괄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물론 80년대 후반 학생운동에서 나타나는 「자민투」의 반외세개념과는 그 배경, 성격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8) 좌익이란 용어의 기원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1791년 10월 프랑스국민회의에서의 장석을 중심으로 헌법옹호파(입헌왕당파)인 다수가 오른쪽에 앉아서 우익이라 했고, 헌법배척파(지론드파, 자코방파)인 소수가 왼쪽에 앉아서 좌익이라 부른 것이 그 시초였다. 독일에서는 헤겔학파에 반대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 즉 무신론적, 유물론적 입장을 취하는 자들을 가리켜 헤겔좌파라 불렀다.

김성희, 「근대서양정치사」(서울: 박영사, 1958), 136-137면.

로버트 울프동 (저), 양병우 (역), 「세계문화사(하)」(서울: 을유문화사, 1963), 87-88면.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좌파성향, 즉 좌경이라는 용어는 학술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관용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용공, 친공, 좌익뿐만 아니라 극좌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의 좌경성향이란 광의적 의미가 있음을 밝혀두며 학생운동에 표방되고 있는 사고, 신념, 그리고 행태가 특정의 급진사상 즉 맑시즘, 레닌이즘, 마오이즘, 김일성주체사상등을 모체로 삼았거나 그 변형된것에 편향함을 말한다.

9) 1974년 4월3일 밝혀진 「민청학련사건」은 베일속에 있는 좌경성향의 급진학생 및 재야인사들의 지도하에 전국 29개대학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던 것이다. 이 조직의 결성목적은 봉기를 통해 정부를 전복하는데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조직을 대학에 심고자 노력하여 온 좌경성향재야인들은 북한방송의 “남한내의 혁명이 자체적으로 봉기되면 북에서 지원하겠다”는 주장을 근거로 학생들을 조직하여 봉기에 이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민청학련이 주도한 시위운동은 1970년 12월의 교련반대, 1971년 3월의 등록금인상반대, 1971년 4월의 반독재구국선언, 1973년 11월의 유신헌법반대 등이다.

세계편집부, 「공안사건기록」(서울: 세계출판사, 1986), 101면.

의 「남조선민족해방전선」(약칭 남민전)사건인데¹⁰⁾ 이 양사건의 공통적인 특성은 좌경적 성향의 학생과 재야인사가 서로 연계되어 하나의 운동권을 형성한 점을 들 수 있다. 또 이시기의 대표적 학생운동으로 유신체제반대운동을 들 수 있는데 이 운동의 성격은 비록 「민청학련」이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유신체제가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체제라고 생각하고 전개했으므로 민주발전과 정치개혁을 위한 우파적 민주주의운동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70년대 중반이후 학생운동은 크게 두가지 흐름으로 나누어지는데 「현장준비론」과 「투쟁우위론」이 바로 그것이다.¹¹⁾ 「현장준비론」은 학생운동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현장에서 노동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고 「투쟁우위론」은 학생운동이 정치투쟁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함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 상반된 입장은 80년대 초반까지 학생운동을 이끌어가는 두 개의 큰 축이 된다.

80년대의 학생운동은 79년 Y.H사건, 부마사태, 그리고 10.26으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한다.

10.26이후 정치, 경제의 혼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는 동안의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80년대의 학생운동은 사상이론투쟁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기 시작한다. 「무·학논쟁」은 80년 5월 광주사태에 대한 평가,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되는데, 패배의 근본원인이 주체역량의 미비라고 했을때, 그렇다면 지금 학생운동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논쟁의 출발점이 된다.¹²⁾ 「무림」은 단계적 투쟁론을 「학림」은 전면적 투쟁론을 주장한다¹³⁾ 이후 「야비」와 「전망」으로 다시 학생운동의 방향설정과 관련해 논쟁이 벌어진

10) 1979년 10월 4일 밝혀진 「남민전」은 지하전위노선에 따른 좌파성향의 급진학생을 비롯한 재야 직업운동가들로 구성된 전선이다. 이들은 1976년 2월에 태동하였고 이 조직의 목적은 학생운동의 배후조종으로 민중봉기를 선도하여 사회주의이념에 근거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전제하에 폭력혁명을 촉발시키려는데 있었다. 그 조직구성을 보면 과거 좌경적 급진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학생, 지식인, 시위 및 보안법 관계수형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현실적으로 이 전선은 당시의 정치적 갈등을 민주화라는 이름아래 학생시위를 선동하여 민중봉기예로의 촉발이라는 계산하에 만들어졌던 좌경적 사상운동의 종합체이었다. 「남민전」은 다음과 같은 재야인 주도의 좌파적 혁명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먼저, 민주화를 형식으로 사회주의이념을 그 내용으로 하여 학생운동을 폭력혁명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민심을 혼란시키기 위해 유언비어를 심리전술로 이용하였다.

세계편집부, 「공안사건기록」(서울: 세계출판사, 1986), 103-242면.

11) 긴급조치이후 지하에서 사상학습에 치중하였던 시기인 1975년 당시 서울대에는 사회대계통의 씨클 “한사연(한국사회연주소)”과 인문대계통의 씨클 “한문연(한국문학연구회)”이 양립하고 있었는데, 전자는 「현장준비론」을 후자는 「투쟁우위론」을 강조하였다.

일송정 편집부, 「학생운동논쟁사」(서울: 일송정, 1988), 11-13면.

12) 학생운동권은 80년 12월 이후 소위 「무·학논쟁」이라는 이름으로 논쟁을 전개하여 84년 이후 소위 「깃발-반깃발논쟁」시까지 그 맥을 계속 잇는다. 여기서 「무림」과 「학림」이라는 용어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명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무림사건은 80년 12월 11일 서울대의 시위와 그 시위때 뿌려진 「반제 반파쇼 투쟁선언」이라는 유인물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사건이며 학림사건은 81년 「전민학련」, 「전민노련」사건을 지칭한다.

일송정 편집부, 「전계서」, 29-35면.

강신철 외, 「80년대 학생운동사」(서울: 형성사, 1988), 21-27면.

13) 김승호, 「한국학생운동사」(서울: 현대비교연구소, 1988) 참조.

다.¹⁴⁾ 이후 83년 12월이후의 유화국면을 둘러싸고 「국내요인본질론」과 「국제요인우위론」이 대립하게 된다.¹⁵⁾ 84년 상반기이후 85년 상반기 사이에 학생운동내부에서 벌어진 제논쟁을 「깃발-반깃발논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은 일면 MT-MC논쟁으로도 불리며 투쟁노선과 조직노선을 둘러싼 대립이다. 이과정에서 85년 「전학련」(전국학생총연합)과 「삼민투」(「전학련」의 산하기구)가 결성된다. 외형상으론 「전학련」이 학생운동의 대중적인 확산운동을 담당하는 반면 「삼민투」는 선농적인 정치투쟁을 수행함으로써 역할분담체제를 구축하는 것같이 보이나 「민추위」(민주화추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삼민투」는 학생회측과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시민민주혁명론」(CDR : Civil Democratic Revolution), 「민중민주혁명론」(PDR :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등의 다양한 혁명론이 등장된다. 그리고 「삼민투」의 미문화원점거는 이후 운동권의 혁명론이 「삼민혁명론」에서 「민중민주혁명론」(NDR)과 「민속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 : National Liberation

14) 「야학비판」은 1982년 3월 14일에 제작된 16절지 한글타자로 된 120면 분량의 유인물을 지칭하며 「학생운동의 전망」은 1982년 대학가에 배포된 8절 크기 한글타자로 20면 분량의 유인물을 지칭한다.

특히 「학생운동의 전망」은 이 유인물에서 70년대 학생운동에서 80년대 학생운동의 과세와 방향까지 4개의 소제목을 구성하여 학생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전망하면서 학생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송정 편집부, 「전개서」, 35-45면.

강신철 외, 「전개서」, 27-37면.

15) 이러한 이선에 기인된 논쟁이 「MT-MC논쟁」의 주요한 한부분이 된다. MT노선은 「국내요인본질론」의 입장에서, MC노선은 「국제요인우위론」의 입장에서 제5공화국에 의해 취해진 일단의 유화국면을 바라보고 있다. 이 논쟁은 「MT-MC논쟁」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송정 편집부, 「전개서」, 66면, 67-68면, 69-70면. 강신철외, 「전개서」, 51-56면.

People's Democracy Revolution)으로 분화되는 계기도 만든다.¹⁶⁾

85년 후반기까지 학생운동을 지배하고 있던 「삼민혁명론」¹⁷⁾이 비과학적이고 대중설득력이 부족한 이념으로 평가되고 85년 민족자주권수호투쟁, IMF-IBRD투쟁의 와중에서 서울대를 중심으로 「자민투」와 「민민투」가 등장하게 되고 이 현상은 각 대학으로 파급되면서 학생운동

16) 흔히 「C-N-P논쟁」으로 불리우는데, 이는 84년 4월경 민청련의 운동론 세미나에서 당시 민청련 정책실장이었던 이을호의 주제발표를 통해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C-N-P정립과정은 각 성파간의 논쟁이 아니라 당시 운동권의 경향성을 분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개인이나 조직에 따라 약간씩 달랐다. 특히 민청련의 NDR과 MT그룹의 NDR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CDR	NDR	PDR
한국사회의 성격 (사회구성체)	주변부 자본주의 사회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사회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
주요모순	군부 독재와 민중간의 모순	제국주의 및 군부 파 쇼와 민중간의 모순	제국주의, 군부파쇼 및 BD(부르조이 민주 주의 세력)와 기층민 중 및 혁명적 인테리 와의 모순
역량배치	중간계층을 중시하고 기층민중을 과소평가	· 주도세력: 노동자, 농민, 도시민민 · 선도세력: 학생, 전 보적청년 · 세력세력: 소부르조 아 자유주의자	기층민중을 중시하고 중간계층 무시
투쟁전술	반파쇼투쟁→반제투쟁	반제 반파쇼투쟁	반제 반파쇼투쟁

자료: 김근태, 문용식 공소장 · 사회와 사상, 「전계서」, 105-135면. 한양대학교 신문편집실, 「도로로 본 80년대 학생운동사」, 1988.11.3, 11면.

17) 삼민혁명론은 파쇼체제의 성격을 삼반성(반민족, 반민중, 반민주)이라 규정하고 한국사회 내부의 모순을 파쇼체제의 삼반성에 있다고 주장한다.

반제투쟁은 삼민이념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반제투쟁을 회피하고 민주전선만 규정하다가 미문화원 사건을 계기로 반제(反帝)투쟁이 등장한다.

일송정 편집부, 「전계서」, 110면.

삼민투 유인물, “삼민투 깃발아래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주개혁 쟁취하자”, 1985.

은 크게 두갈래로 나뉘어지게 된다. (표 1·표 2 참고)

〈표 1〉 「자민투」와 「민민투」의 노선비교

	NDR파	NLPDR파
사회구성체	· 예속국가독점 자본주의사회 (CA) ·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 사회 (CPC)	신식민지 반봉건사회(반자본주의사회)
기본모순	Bg와 PT간의 모순	미제와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를 일방으로 하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을 포함한 광범한 민중을 일방으로 하는 양자간의 모순
주요모순	· 파쇼와 민중간의 모순(CA) · 제국주의, 파쇼와 민중간의 모순 (CPC)	미제와 남한 민중간의 모순

〈표 2〉 「자민투」와 「민민투」의 전략, 전술 비교

	NDR파	NLPDR파	
혁명성격	민족민주혁명(NDR)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	
전략목표 (통일문제)	선 파쇼타도 하고, 민족민주정권 수립 후 북한과 회담	선 미제축출하고, 민중 민주 정권수립 후 북한과 회담	
역량배치 (통일전선)	주력군	PT와 전위조직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과 그 속에 있는 전위조직(한국민족민주전선)
	동맹대상	부농, 도시 빈민 및 청년학생	지식인, 소시민, 중소기업업자, 하층공무원, 군인 등 각계각층의 민중
	계류대상	급진 자유주의 부르조아지	자유 부르조아지 전반
	고립화대상	보수 자유주의 부르조아지	일부 동요세력

86년 4월 「자민투」(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가 결성되면서 기관지 「해방선언」을 통해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조국통일촉진투쟁을 선언하고 한국혁명을 위한 논리로써 NLPDR을 공식적으로 제창하며 삼민투 일부세력(MT계열)은 NDR론을 기본골간으로 계승하면서 반제반파쇼투쟁을 선언하는 「민민투」(반제반파쇼 민족민주투쟁위원회)를 86년 3월에 결성하고 기관지 「민족민주선언」을 발행하여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된다. 민민투는 초기에 헌법제정민중회의소집투쟁을 주장하는 CPC(헌법제정민중회의 : Constituent People's Conference)가 주도했으나 5.3사태를 계기로 CA(제헌회의 : Constituent Assembly)주도로 변화된다.¹⁸⁾ 86년 상반기이후 학생운동의 개헌투쟁입장은 「제헌회의소집투쟁론」과 「직선제개헌투쟁론」으로 대별되며 이후 이 두입장은 정부 여당의 내각제개헌시도, 4.13호헌조치 등의 정치일정변경속에서 약간의 변화를 거치지만 6.29선언이 있기까지 학생운동의 개헌투쟁을 주도한다. 이러한 자민투와 민민투의 투쟁조직으론 민민투의 「민민학련」(전국 민족민주 학생연

18) 일송정 편집부, 「전계서」, 124면.
강신철 외 「전계서」, 147면.

맹)¹⁹⁾, 자민투의 「애학투련」(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등이²⁰⁾ 있고 86년의 애학투련의 전대반성에 따라 「서대협」(서울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 87년 5월 8일에 결성되며 곧이어 6.10민주화시위의 주도적 역할로 얻어진 결과에 따라 서대협의 전국적 조직인 「전대협」이 그해 8월 19일 결성되어 학생운동의 투쟁조직이 재편, 정착이 된다. 이러한 흐름속에 88년을 맞으면서 민민투는 「서건추」(서울지역 대학생총연합건설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전대협과 서대협은 88년 5월에 「서총련」(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을 결성하고 7월에 서건추가 서총련에 통합된다.²¹⁾ 이렇게됨으로써 양대학생운동이 하나로 통합되는 양태를 띠고 전개되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부가해서 한국학생운동의 80년대 중반이후의 흐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흐름의 하나는 86년 초부터 제기되어 나온 주사파의 부상이다. 주사파는 한국사회를 신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보면서 미국의 신식민지로 규정짓고 현정권을 허수아비정권으로 규정짓고 미군축출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민족해방을 강조하는 노선으로 다분히 북한의 사상적 흐름과 유사한 일면을 지니고 있으며 비주사파와의²²⁾ 사상공방을 통해 자신들의 운동권에서의 역량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전개되어 온 학생운동을 역사적 흐름의 맥락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를 각시기에 따른 학생운동의 잇슈 및 쟁점별로 종합하여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개 시기적으로 일제시대부터를 학생운동의 효시로 기산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학생운동은 해방이후 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해방직후의 좌우익학생운동은 과도기의 이념적 혼란에서 빚어진 것으로 좌우이념대립이 가져온 산물이라 할 수 있겠고 50년대는 관제동원의 결과로서 학생들에게 소외의식을 느끼게 한 시기로 평가되며, 1960년대에는 민주주의, 헌법 그리고 자유, 평등, 진리, 정의 등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었고 70년대에는 민주주의, 자유, 투쟁, 혁명이며 80년대에는 경제, 매관, 노동, 투쟁, 혁명 등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60년대가 다소 당위적이고 이상적인 입장에서 민주주의나 자유를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표현하는 헌법에 관한 문체에 집착한 반면 70년대부터는 물론 민주주의나 자유를 이상으로 하되 투쟁이나 혁명을 수단으로 한 현실참여라는 점을 학생운동이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하며 80년대 와서 이론이 보다 구체화되어 직접 현실참여의 목적과 연관된 매관, 통일 및 노동문제에 관해 쟁점화되고 있고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쟁취키 위한 수단도 이상적

19) 일송정 편집부, 「전계서」, 190면. 강신철 외, 「전계서」, 192면.

20) 일송정 편집부, 「전계서」, 192면. 강신철 외, 「전계서」, 243-269면.

21) 대통령 선거후 「전대협」은 「비관적 지지파」와 「단일화 촉구파」의 분열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되었으며 「민민학련」 역시 투쟁의욕을 잃고 있었다.

양 세력은 이 원인을 운동권의 양분과 조직운영의 실패에 있다고 분석하고 단일지도체제인 「전국학생 총연합(전학련)」 건설의 목표 아래 NL파는 「서대협」을 해체하고 「서총련」으로 조직을 재편하며 CA파는 「서건추」를 결성하게 되며 이것도 「서건추」가 「서총련」에 통합되므로써 분열 현상을 일단락짓게 된다.

22) NL비주사파와 PD그룹을 통칭해 비주사파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김승호, 「대학에서의 주사파」(서울:자유공론, 1989.10), 84면.

주사파가 학생운동권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반면, 비주사파는 노동 운동권에서 실세를 이루어 왔다.

일송정 편집부, 「전계서」, 208면.

이거나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투쟁이나 혁명을 수단으로 하는 좌경적성향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생운동자체가 80년대 들어서서는 지금까지 즉흥적, 감성적 국면에서 벗어나 보다 이념적이고 이론적으로 무장한 좌경성향 학생운동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둘째, 60년대와 70년대는 주로 민주주의, 자유, 독재, 부정부패, 선거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나 80년대에 와서는 민주주의, 매관자본, 노동문제, 통일, 투쟁, 민족자결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모색으로 나오고 있고, 여러가지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문제제기가 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학생운동의 방향이 어느 한 특정한 이상적 쟁점의 범주에서 탈피하여 현실적응적인 쟁점으로 다원화하고 있음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현 사회제도나 이념의 다원화경향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입장에서 볼때 학생운동의 흐름도 어느 주가되는 쟁점과 더불어 다원적인 쟁점이 부가되어 다원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셋째, 1960, 70년대가 다분히 자유나 평등, 진리, 정의등을 구가하며 독재정권의 타도를 통한 궁극적인 민주사회건설이라는 다분히 낭만적인 학생운동의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80년대는 이러한 낭만성에서 벗어나 외세축출과 자본주의체제의 제모순에 관한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외세종속성에서의 탈피, 미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 민족성회복, 남북의 조건없는 평화적 통일, 경제적 종속성 탈피, 균등한 부의 분배, 경제적 착취계급인 매관자본가의 응징, 군부독재정권의 타도등이다. 여기에서 특기할 점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적으로 통일문제와 경제, 매관에 대한 쟁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독재파쇼타도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공히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쟁점인 반면 통일, 민족, 경제, 매관은 특히 80년대 들면서 강하게 제시되고 있는 쟁점이라는 점인데 이것은 80년대의 학생운동이 물론 독재파쇼정권의 타도에 주춧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에 한정하지 않고 외세축출과 자본주의체제의 개혁 또는 전복에도 주요관심을 경주하고 있다는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60년대에는 학생운동의 이념적 이론무장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림과 학림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을 추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의 시각과 방법론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고 이것을 균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열면 이론논쟁이 뒤따르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생운동의 방향성이라 할 수 있는 학생운동이념이 창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흐름은 「무림-학림」, 「야비-전망」, 「깃발-반깃발」, 「C-N-P논쟁」등을 거쳐 80년대 중반의 「삼민투」 그리고 「민민투」, 「자민투」간의 이론논쟁은 이 땅의 좌경적사회주의 운동의 이론적 기초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대개 학생운동의 진양지는 학내문제가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가 지니고 있는 경직성, 관료성, 그리고 재정적 문제등이 항상 빌미가 되어 이것이 사회문제로 증폭되어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음을 구미의 학생운동의 흐름에서도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구미의 사례가 오늘날 우리 대학에도 적용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렇기때문에 학생운동을 보는 입장도 비교적이고 균형화된 시각이 필요로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III. 일본 및 구미의 학생운동이념 변천과정과 평가

1. 일본학생운동

한국학생운동과 유사점이 가장 많은 일본의 경우를 먼저 살펴 보면, 일본의 근대화 일백년사와 맞먹는 전통을 자랑해온 일본의 학생운동이²³⁾ 과격화로 치닫기 시작한 것은 1948년 「전일본학생자치총연맹」(전학련)이 결성되면서부터였다. 그 이전에는 명치유신 초기의 자유 인권운동기에 반정부운동을 벌인데서부터 사학의 명문인 와세다대학이 자타공인의 일본 반정부 학생운동의 주역을 담당했고 관학의 본산인 동경제국대학도 반정부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이었으나 과열한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1922년에 창단된 「일공」(일본공산당)²⁴⁾은 코민테른²⁵⁾의 1개 지부로서 천황제, 봉건문제, 일본제국주의 타파의 기치아래 학생운동을 전파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속에 1948년 9월에 전학련이 결성되어 학생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케 하였다. 즉, 이러한 변모는 전학련이 반정을 그 이데올로기로 표명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본공산당 학생당원들이 전학련에 대거 참가 그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전학련의 결성은 일제 군국주의가 일으킨 2차세계대전 패배와 켈히의 쓰라린 상처의 배성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화와 민주주의, 보다 나은 학생생활」(전학련 규약2조)을 운동 목표로 표방하고 있는 점이든가 「반정」을 이데올로기로 내어 걸고 있는 것 등은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이같은 이데올로기와 운동목표지향의 전학련은 일본공산당의 영향속에 반정부에서 반체제로 운동의 성격을 전환하게 되며 「적이 옹호하는 모든 것에 반대하고 적이 반대하고 거부하는 모든 것을 지지한다」는 모택동의 전술을 기본전술로 채택, 정부와 체제측이 추진하는 것

23)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의 학생운동은 1918년의 동경대학 '신민회' 탄생이래 이미 7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24) 일본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이 창설된지 1년후인 1922년에 조직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공은 창건이래 사실상 사회의 대중적 토대와는 유리된 상태에서 활동해 왔고, 군국주의의 대두와 더불어 거의 지하로 잠적했으나 일본의 패선과 더불어 급속히 활발해졌고 46년에 당원수가 불기 7500명에 불과했는데 51년에 8만명, 70년대에 28만명, 80년대에는 약 50여만명에 이룸으로써 오늘날 비공산주의국가 가운데서는 이탈리아, 프랑스 공산당에 이어 세계 3위의 당세를 갖게 되었다.

25) 코민테른은 제3인터내셔널(The Third International) 또는 제3국제공산당이라고도 한다. 이 당은 1919년 3월 모스크바에서 레닌이 주동이 되어 세계공산혁명완수를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며, 1946년 6월까지 공산당에 대한 투쟁지도를 해왔으나 1943년 5월 제2차 세계대전에 따라 대전국의 공산주의자들은 각기 자국과 자기민족의 이익을 위해 노동계급의 국제성을 부인 반대하게 됨으로써 해산권고결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동년 6월 소련 공산당은 이를 해산시키 버리고 말았다. 제2차세계대전후 코민테른을 대신한 국제 공산주의 지도부는 소련이 주동이 되고 유럽의 9개국 공산당 대표가 참석해 1947년 9월에 결성한 코민포름(Cominform)이다. 그러나 이도 유고 공산당의 탈퇴를 계기로 1956년 4월에 해산된다.

26) 김 진, 「전계서」, 241면 참고.

이러면 무엇이든 반대투쟁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1950년대의 일본학생운동의 흐름은 반봉건적 문제를 타파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종속에서 벗어나며 토지소유제의 개편을 통하여 천황, 특권관료, 구반동군벌, 기생지주, 독점자본가, 미국 등을 역사의 장에서 사라지게 하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들이 채택한 혁명 전략은 무장투쟁의 전위로 새로운 기타 저항조직과 “중핵자위대”를 탄생시켜 이를 중심으로 도시형무장(도시부장 세릴라)과 농촌형무장(농촌파르티잔)을 구상하였고 궁극적으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이루려고 하였다. 특히 전학련은 일본공산당의 혁명단계론에서 트로츠키파에 심취되어 철학적 주체성을 강조하였다.²⁷⁾

결과적으로 전학련은 「미군주둔 반대」, 「핵실험 반대」등을 들고 나왔으며, 60년의 「미·일 안보조약」 파동을 세기로 세력 절정의 전성기를 맞기도 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학생운동이 비교적 단합되고 덜 과격한 것이었다.

그러나 60년을 전후해 이같은 일본학생운동 세력에 상호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본 공산당파와 비일본 공산당파간의 불화가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전학련은 「일공계」와 「반일공계」로 분열되었다.²⁸⁾ 이 분열은 그후 일본학생운동을 더욱 과격화시키고 파괴적인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 분열후 일공계는 결정적 시기를 위해 힘을 구축해야 한다며 자제를 보인 반면 반일공계에선 「학생들이 계급투쟁의 선두에 서서 노동자·농민·시민들에게 위기의 경종을 울리고 투쟁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술한 가두시위를 벌이면서 「국회 난입사건」(60년 11월)을 비롯,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방일반대저지투쟁」(60년 6월), 「하네다 국제공항 로비점거사건」(67년 10월)등 일련의 유혈사태를 일으키면서 과격행동으로 치달았다.

6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120여개 지부를 전국대학 산하에 둔 전학련은 「미·일안보 반대」, 「베트남전쟁 반대」,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등의 심치적인 쟁점을 놓고 반정부운동에 열기를 더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반일공계는 다시 조직이나 대중투쟁이나 라는 전술채택문제로 또 다시 분열하게 되었으며, 사분오열된 전학련은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자금과 주도권쟁탈을 위해 세력다툼을 벌였는데, 이 역시 학생들의 행동을 더욱 무모하고 과격하게 만드

27) 1957년 1월 구보다 간이찌 등이 주축이 되어 일본 트로츠키연맹(제4인터내셔널 일본지부)을 결성했다. 이들은 철학적 주체를 확립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권위에 굴복한 전략론이 잘못된 것이라고 믿고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론」을 비판하며 우메모도의 「주체성론」과 데이의 「경제철학」과 다게야 「기술론」의 비판적 섭취에 기초하여 일본형 트로츠키즘의 철학적 특징인 「주체성론」을 구축한 것이다.

정대동, 「전계서」, 26-37면. 김진, 「전계서」, 35-46면.

28) 6·1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전학련 11회 대회(58년 5월 28일-6월 1일)에서 일공중앙을 지지하는 전학련 반주류파는 광범한 통일전선을 주장하고 실력투쟁노선에 반대함으로써 주류파와 격렬하게 대립한다.

김진, 「전지서」, 58-63면, 206-207면, 255-256면.

는데 박차를 가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²⁹⁾ 헬멧과 몽둥이는 물론 화염병, 농약, 석탄, 염산 등의 화학무기까지 등장하고 있었다. 수상은 적대권력의 상징이요 대학당국은 적대권력이라고 당시의 진학련학생들은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적과 싸우는데 수단·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학생들의 논리였다.³⁰⁾

과격화 일변도로 치달던 일본의 학생운동에 일대전기를 마련한 것이 68년의 그 유명한 「동경대학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일본학생운동 극렬화의 절정이었으며, 분수령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사회는 학생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으며, 학생·학원 스스로에 의한 주체적 반성과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제도적 장치에 의한 객관적 수습에 나서게 됨으로써 학생운동의 과격화가 일단 수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일본의 60년대 학생운동은 초기에는 안보투쟁으로 나아갔으나 말기에 와서는 학내문제를 중심으로 한 투쟁으로 투쟁대상과 방법이 바뀌어졌던 것이다. 1970년대의 안보투쟁은 소수극렬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무장혁명투쟁의 형태로 나타났다. 납치, 테러 등이 일반화되었으며 이 당시 주잇슈는 「미·일안보조약폐기」, 「오끼나와 반환」 등 주로 반미적 성향이 강한 것이었다. 이러한 소수극렬학생의 강성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침체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나리따공항 테러」나 「미국과학전람회 개최제지」책동 등이 야기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의 투쟁전략은 강성을 외향적으로 포기한 듯 하나 노학연대를 통해 학생운동의 성격변화를 꾀하고 있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중하류층 서민들에게 침투하여 혁명자생역량을 배양하는데 주력하고 결정적 시기에 이들과의 연대투쟁을 전개해 폭력적 무장봉기를 일으키겠다는 근본적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미국학생운동

미국의 경우는 1776년 미국독립을 전후하여 식민지시대의 미국대학생은 독립을 위해 대륙군대(Continental Army)에 입대하거나 민병대에서 활약하였다. 그리고 1790년대엔 하바드대에서 시험제도와 관련된 소요가 일어났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소요는 계속되었다.³¹⁾ 이때의 학생운동은 미국의 독립을 위한 목적과 교조적인 프로테스탄티즘에 반대하고 고압적인 학교 행정과 그 체제에 대한 반항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후 19세기 들어 농

29) 혁마르파는 중핵파, 사학동, 사청동 해방파의 소위 '3파'를 소부르조아 급진주의라고 비판하고, 3파는 혁마르파를 개량주의라고 비판하는등 당파간의 항쟁이 표면화되었다.

김진, 「전계서」, 165면.

현대평론, 「전공투」(서울 ; 백산, 1985), 36-40면.

30) 김진, 「전계서」, 151-167면.

현대평론, 「전공투」(서울 ; 백산, 1985), 89면-121면.

31) Granville Stanley Hall, *Adolescence : Its Psychology*(N.Y. : D. Appletoy, 1904), p. 138.

부의 귀족적 사립학교에서 노예폐지론과 관련된 학생들의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³²⁾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학생운동의 시초는 1930년대의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정치참여에서부터였다고 볼 수 있다.³³⁾

1930년대를 전후한 시기는 경제불황에 맞서기 위한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 시도되던 때로 자유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커다랗게 도전을 받던 때였다.

1940년대에서부터 1950년대까지는 미국에 있어서 극단적 우익주의가 들어서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대두한다. 이것이 가져다 준 이데올로기적 혜택도 있었지만 그것 못지 않게 극단주의가 가져다 준 해악도 없지 않았다.³⁴⁾ 그러한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1950년대에 성행한 맥카시즘(McCarthyism)이었다. 이 운동의 영향은 연방 정부, 대학, 군부, 노동조합 등 거의 모든 사회조직에 파급되었으며 특히 대학내에선 학생들이 이러한 운동의 전위세력으로 활약을 하였다.

1960년대 들어와서는 서서히 이러한 맥카시즘의 영향력이 감퇴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반동적 움직임으로써 새로운 이념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 신좌익운동(New Left Movement)이었다. 이 운동은 주로 젊은 층과 대학생들에 의해 주도되고 조직된 선동, 항의 그리고 폭동에 관한 총체적인 기성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반항운동이었다. 그리고 이 운동의 특기할 만한 점은 노동자가 중심이 된 노동조합에 의해 영도되는 것이 아니라 결코 프롤레타리아가 아닌 중산층의 대학을 다니는 젊은 층이 주동이 되어 조직되고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점이다.³⁵⁾ 주로 이들의 반항의 대상은 대학과 대학생활에 관한 것이며³⁶⁾ 그들이 공격목표를 대학으로 삼은 것은 대학에 대한 비판이 결국 사회, 정치적인 비판과 연계되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운동은 초기엔 대학 캠퍼스내에 국한되어 발생되다가 급기야는 노동자, 공무원, 봉급생

32) 1830-1840년대까지 노예폐지론자인 북부 학생들과 반대론자인 남부학생(Ku klux Klan)의 격돌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후 1905년 들어 「미국 전국대학사회주의 연합」(Intercollegiate socialist society)이 결성되어 1차대전전까지 60개 대학에 전파되었다. 특히 프로테스탄트즘에 강한 대학일수록 강한 경향을 보였다.

S. Lipset. *op. cit.*, pp. 132-136, *Ibid*, p. 148.

33) Norman Birnbanm and Marjorie Childers, "The American Student Movement", J. Nagel, *op. cit.*, p. 130.

34) 립셋(S.M. Lipset)은 극단주의는 민주적 정치과정에 있어서 말 또는 행동을 통한 범법 행위라고 규정지었다.

S.M. Lipset and Earl Raab, *The Politics of Unreason : Right Wing Extremism in America 1960-1970*(New York : Harper and Row, 1970, second e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p. 428.

35) 1960년대 미국의 학생운동의 전형적인 사례는 버클리 대학교의 학생소요불 들 수 있다. 이 버클리의 학생운동은 미국국내뿐만 아니라 영국, 서독, 프랑스 등의 학생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슈는 주로 학원내부의 민주화, 자율화 그리고 거대한 학교조직의 관료화였다.

김동일, 「미국 학생운동, 참여에서 저항으로」(서울, 광장8, 1989), 103-105면.

36) 대학의 지식주입교육, 만원의 강의실, 강의의 비인격성, 적절한 재정지원의 부재, 자연과학과 합리론의 강조, 각종 시험에 대한 불만, 경직된 대학행정체제, 관료체제 등이 주공격 목표가 되었다. 이 은호, 이 신일 공역, 「전계서」, 269면.

활자 등 전사회계층으로 파급되었다. 이렇게 미국 전역을 들끓게 했던 신좌익운동의 실체는 무엇이며 또 무엇이 미국의 젊은이들과 대학생들을 이러한 광란적 이데올로기에 매료되도록 하였는가?

이에 대한 답을 현대산업사회가 가져다 준 인간소외의 일면에서 찾는 입장이 지배적이다.³⁷⁾ 또한 지나친 합리주의 객관주의의 추구로 인해 베르그송(Bergson)이 말하는 직관만으로 포착할 수 있는 궁극적인 실체(les realites profondes)를 결코 파악하지 못한데서 온 결과로 보는 입장도 있고, 고도산업자본주의화에 의한 생산으로부터의 노동자의 분리에서 기인된 결과로 보는 입장도 있다.³⁸⁾ 이러한 결과에 의한 인간적 소외, 그리고 좌절이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반지성적, 비합리적, 부정부적, 반자유주의적, 반관료주의적, 반문화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였던 것이며³⁹⁾, 이것이 월남전 반대 움직임 등과 결부되어 60년대를 학생운동의 절정기 휘몰아 갔던 것이다.

이러한 걱정은 70년대를 기점으로 서서히 쇠락되어 가고 있다.

대개 미국에서 보는 학생운동의 성격은 첫째, 학생운동을 일정한 시기마다 표출되는 일종의 유행(fashion)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유행의 변화와 같이 시기에 따라 그들이 내세우는 이념적 사상적 성격은 변화되어 이러한 운동을 통해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이상향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대변하는 하나의 실례로 월남전 참전 및 확전에 관한 1969년 12월에 발표된 「겔럽여론조사」나 거의 같은 시기에 실시된 「플레이 보이」지 또는 「해리스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이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초반에는 강하게 나타나다가 후반에 들어서면서 지지율이 저하되어 미국의 대외정책과 상반되는 양태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도 젊은이들의 이성적 또는 이상적 관심이 시대의 상황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변모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학생운동을 젊은이로의 열기나 야망의 분출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또는 젊은이로의 인격적 미성숙으로 인한 자세의 불능에서 기인되는 현상으로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

37) 현대 산업사회가 가져다 준 인간성 상실과 임의성, 창조성, 욕구의 상실에서 오는 인간적 소외, 좌절이 결국 중산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운동에 탐입케 하였다고 본다.

David Reisman, *The Lonely Crowd*(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50).

Oscar Handlin, *The Uprooted*(Boston, Mass.: Little, Brown, 1951).

38) M. Teodori; *The New Left : A Documentary History*(N.Y.: Bobbs-Merrill, 1969), p. 156.

Herbert Marcuse, *One Dimensional Man*(Boston, Mass.: Beacon Press, 1968), p. XV.

39)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다음의 책을 참고할 수 있다.

Robert C, Tucker, *The Marx-Engels Reader*(N.Y.: Norton, 1978)

Alain Touraine, *The May Movement*(N.Y.: Random House, 1971)

Theodore Roszak, *The Making of a Counter-Culture*(N.Y.: Double day, 1968).

Daniel Cohn-Bendit, *Obsolete Communism : The Left-Wing Alternative*(London : Andre Deutsch, 1968).

Paul Jacobs and Saul Landau, *The New Radicals*(N.Y.: Vintage, 1966)

Raymone Aron, *The Elusive Revolution*(London : Pall Mall, 1969).

A. Carten, *The Political Theory of Anarchism*(N.Y.: Harper and Row, 1971)

Erick H, Erikson(ed), *The Challenge of Youth*,(N.Y.: Anchor, 1965)

Robert Lamb et. al, *Political Alienation*(N.Y.: St, Martin, 1975).

다고 해서 운동권의 모든 학생들이 형편없는 가치관을 가진 것은 아니다. 조사대상이 된 학생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중상류층의 전문직업적 가문출신으로 인본주의적 가치관과 지적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양육되었으며 독립심을 중시 여기고 이상적 교육을 받았으나 부모가 정치적으로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가정출신자녀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그들의 사고와 행동을 그저 충동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 아니다.⁴⁰⁾

세째는 학생들의 신분상의 이원적 구조에서 기인되는 갈등이 학생운동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즉, 이미 고도로 기성체제화 되어 있는 경직적이고 관료제화된 대학교의 학교행정과 연구, 배움의 대상이면서 배움의 주체인 학생들의 참여간에 나타나는 갈등이 학생운동의 주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⁴¹⁾

네째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학생수의 증가가 대규모 시위를 가능케 하며 또한 학생수의 증가로 인한 학교시설 및 교원확보에서 비롯되는 재정부담이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좌절적 충동이 학생운동의 촉발적 요인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대학은 그 시대 사회상의 반영이며 그렇기 때문에 학생운동은 보다 새로운 사회갈등과 지도를 위한 틀을 세우기 위한 실험적인 시도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대학생들의 신좌익운동은 70년을 고비로 퇴조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각성한 학생들의 면학분위 조성운동과 미국사회가 이들 신좌익운동 학생들에게 졸업 후 그들의 사회진출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유럽학생운동

먼저 영국에는 대학교육의 이원성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고유의 학문적 영역분야를 공부시키는 것과 아울러 특유의 직업교육(professional formation)을 병행시킴으로써 대학교육과 산업계와 연관된 교육이 실시되어 대학과 산업계는 깊은 연관체제를 지닐 수 밖에 없었다.⁴²⁾ 이러한 과정에서 현실적 분세에 대한 인지와 사회적 모순을 해소키위한 노학연계의 배경이 형성되었으며 이런 입장에서 학생운동의 기본적 구조와 기능이 구축되어졌고⁴³⁾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행해왔던 문화적 가치(cultural values)나 사회적 관행(social practice)에 따라

40) S.M. Lipset, *op. cit.*, p. 103.

41) 립셋은 대학의 학원시위요소로 학교의 규모(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데모수가 많고 과격화), 학생의 지적능력(지적능력이 높을수록 데모회수가 많고 과격화), 대학의 관료성(관료적일수록 데모회수가 많고 과격화), 비개인성, 학문상의 혁신능력, 교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대학일수록 학생소요의 회수나 과격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S.M. Lipset, *op. cit.*, pp. 97-100.

42) Julian Nagel, "A World Cultural Revolution", in J. Nagel(ed.), *op. cit.*, pp. 203-206.

43) J. Nagel(ed.), *op. cit.*, pp. 10-14.

조합적 자본주의(corporate capitalism)를 추구케 되는것이다.⁴⁴⁾ 이러한 입장이 학생운동의 기본적 이슈가 되고, 추진을 위한 모멘트를 제공케 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학생운동의 발전단계를 보면 처음단계는 소수학생집단이 국내·외 문제로 데모를 시도하였는데, 여기에서 국내·외 문제란 인종차별, 베트남반전, 로데시아문제 등의 국외문제와 윌슨(Harold Wilson) 내각의 국내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다. 다음 2단계로는 이러한 학생시위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제재에 대한 반발로 나온 시위이며, 다음 3단계는 진보적이고 과격한 학생들이 이러한 세 반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구상으로 체제위원회설립을 요구하고 이 위원회에 참가를 요망하며 그에 병행해 재반교육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다음 4단계로는 ‘행동하는 지성’(action with thought)으로 자부하면서 대규모 정부, 사회, 체제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는 것으로 진전시키는 것이다.⁴⁵⁾ 이러한 것은 학생운동이 초기엔 명분성이 농후한 피부에 와닿는 정치사안 및 사회문제를 들고 나오다가 사회적 여론화 과정을 거쳐 체제나 사회제도개혁의 변화를 초래하려는 대규모 시위와 유형적 물리력행사로 까지 진전됨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음 독일의 경우를 보면 전전세대의 경우 기득권확보와 안전회구에 대한 강한 열의를 지니는 반면 전후세대의 경우는 진취와 혁신을 내세우면서 기존질서에 대한 강한 반발과 도전성을 시도함으로써 전전세대와 전후세대간의 강한 대치현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전후의 일반적 분위기였다. 그리고 공산화에 대한 우려에 있어서는, 부의 축적이 전사회에 어느정도 균등하게 실현됨으로 해서 그쪽의 노선을 어느정도 답습코자 하는 독일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의 반시즘이론은 인기를 상실 당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볼때 그러한 우려는 독일사회에 크게 일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움직임이 독일내의 진보세력을 고양시켜 체제변동을 위한 소요에 가세시키는 일면도 없지 않았다.⁴⁶⁾ 또한 독일의 대학의 경우 대학당국이 학생제재조치를 강경하게 하면 할수록 정치적으로 중립적 입장에 있었던 학생들도 소수 과격학생의 운동이념과 학생운동에 동조하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주로 학생운동의 이슈는 대학의 제도와 기능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독일연방공화국체제에 대한 비판까지 학내·외의 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서독학생운동을 주도하는 그룹은 기민당(Liberal Democratic Party)을 지지하는 학생, 진보적 학생(liberal student), 중도적이고 온건한 사회개혁주의를 추종하는 학생(moderate socialist student), 과격하고 급진적인 사회주의 지지 학생(radical socialist student)들이며 이들은 주로 다양하게 엮여져서 운동을 주도하고 있으나, 그들간에 통합된 강령이나 미래의 명료한 청사진이 상실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

44) 영국의 교육이나 대학은 세계적 이념 변천과 그와 연계된 여러가지 제도적 수정과정을 통해 조합 자본주의로 흐르면서 지역적 교육개혁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특히 자유교육은 한 때 자본가 자본주의(bourgeois capitalism)나 중산계층(middle class)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직업교육(shilled professional school)으로 변신되어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갈등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갈등상황이 학생운동의 기폭제로써 작용하는 것이 영국에 있어서의 학생운동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Ibid., p. 14.

45) Dick Atkinson, "The Academic Situation", in J. Nagel(ed.), *op. cit.*, pp. 40-42.

46) Era Weller & Wilfred Van Der Will, "Protest in West Germany", in J. Nagel(ed), *op. cit.*, p. 47.

고 이들 그룹들이 추종하는 운동이념에 있어서도 그들의 노선에 따라 다양한데 주로 사회민주당계열은 마르크제(Marcuse)이론인 진보적 자본주의의 맑스적 해석을 추종하고 있으며 진보급진적 자본주의자 그룹(radical democrats)이나 사회주의그룹(socialist group)은 신맑스이론에 동조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기성정당을 보수정당으로 인정하며 이들을 통한 사회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현재 포류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적 적응은 노동자계급의 사회통합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기존 사회체제나 그에 파생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치를 거부하는 젊은 세대가 혁명가로서 행동하여 사회적 적응을 시도하여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개 독일의 경우도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문제시되는 학생들은 어떤 뚜렷한 정치의식이나 정치적 신념보다는 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압력, 친구간의 갈등, 학과공부 등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 등에 의해 학생운동에 뛰어드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⁴⁷⁾ 독일의 학생운동은 기성권위에 대한 자기보호를 위한 본능적심리에 시 일어난 것으로 분석되는데 자기들을 지지해준 사회계층과의 세휴로서 기성사회질서에 항거 하기 위해서였다고 분석되고 있다.

다음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1968년 5월에 수만이 넘는 학생시위가 수없이 벌어졌고 근 천만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초래되었다.⁴⁸⁾

프랑스에서도 교육은 사회적 힘중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그만큼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학생운동도 그런 맥락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프랑스의 교육은 중앙집권적 형태를 띠고 있어서 교육의 다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여건도 그리 좋은 것이 되지 못했다.⁴⁹⁾ 따라서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재원조달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리 손쉬운 일이 아니며 그러한 결과 75%정도의 학생이 졸업을 하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대학은 일부 중산부유층 이상만이 수학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며 여기에서 탈락된 학생들의 적개심은 급기야 1968년 3월 22일 낭테르(Nanterre)대학의 학생운동으로 불붙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들이 내세운 주장은 대학시설의 개선과 교수들의 외부강의 불허, 그리고 재정지원 등을 둘러싼 학원투쟁, 국외적외론 월남전 반대였으며 이러한 것이 시험거부 등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졌다.⁵⁰⁾ 이러한 학생운동은 소르본느대(Sorbonne)까지 확산되었는데, 이 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된 것은 독일 S. D. S⁵¹⁾나 미국의 경우에 많은 영향을 준 마르크제의 사상이 아니라 사르트르(Satre)나

47) Dietrich Goldschmidt, "Psychological Stress ; A German Case Study", in J. Nagel(ed.), *op. cit.*, p. 59.

문제학생을 선도하기 위해 대개 심리적 치료로 두가지 방법을 병행 시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는 유전학적 근원치료(biogenetic origin treatment)로 아이의 정신기질, 아동기의 행태등을 심도있게 연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후천적 환경요인 완화치료방법이다.

48) George Gress, "France, May 1968", in J. Nagel(ed), *op. cit.*, p. 91.

49) 1957년에 175,000명이던 대학생이 10년후인 1967년에 50만명으로 거의 3배나 증가했다. 교수와 학생간의 비율도 1 : 30이나 되었다.

50) *Ibid.*, pp. 93-94.

Ibid., pp. 96-97.

51) 1961년초 급진좌파적 성향 때문에 사민당(SDP)으로부터 제명당한 사회주의 독일학생 연맹.

고즈(Gorz)의 사상이었다.⁵²⁾ 프랑스학생운동은 이상으로 볼때 그 운동의 근원이 학생들의 학비부담과 같은 재정적인 부담과 국내 자생적인 사회주의의 조류(사르트르 등의 주도), 그리고 산업계에 붙어닥친 경제불황과 노동운동이 서로 맞닿아 떨어진 결과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IV. 학생운동에 관한 유인물 및 전단의 내용별 계량분석

1. 연구분석체계

본 연구에선 내용별 계량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학생운동에서 나타나는 사상, 이념, 투쟁노선을 제시한 전단 및 성명서 내용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의 분석체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를 크게 삼대분하여 전단이나 유인물을 수집했다. 1950년대가 생략된 이유는 1950년에는 학생운동의 성격을 규정지우는 전단이나 유인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단이나 유인물이 없는 이유는 근 40여년의 시간적 차이에 의한 자연소멸의 까닭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까닭은 1950년대에는 전단이나 유인물 등을 통한 대중운동을 추진할 조직이나 홍보매체들이 거의 전무했다는 사실이다.

1960년대 것으로 수집된 유인물의 총수는 61종이며 1970년대 것으로 수집된 유인물의 총수는 116종, 1980년대 것으로 수집된 유인물의 총수는 55종이다. 1980년대 유인물이 60년대나 70년대 보다 적게 분석된 이유는 수집된 유인물이 적어서가 아니라 분석이 가능한 것만을 취사 선택했기 때문이다. 유인물의 양적인 면으로 볼 때 80년대는 학생운동이념의 정립기였던 만큼 다른 어느 시기보다 유인물이나 전단, 성명서가 많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것을 다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구분야와 연구대상의 한계에 근거하여 시기를 대별하고 성격상 대표성을 지니는 것을 선별하여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60년대와 70년대에 비해 80년대는 이론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열띤 운동권 조직간의 갈등과 이념, 이론 논쟁으로 인해 유인물의 양이 방만하다. 따라서 여기선 60년대와 70년대의 자료와 수평적인 비교를 가능케 하기 위한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면 페이지의 양들을 고려해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 자료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절대 빈도(absolute frequency)가 아닌 상대 빈도(relative frequency)로서 자료들을 비교함으로써 자료의 양적 차이에 의한 대표성의 왜곡현상을 최소화 시켰다.

둘째, 이렇게 수집된 유인물을 하나씩 문헌별로 내용 분석을 하면서 빈번히 눈에 띄는 단어나 문장들을 정밀측정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분석이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 이러한 정밀측정변수들 중 유사한 집군끼리 분류해 유사집군을 대변할 수 있는 변수를 설정하는데

52) *Ibid.*, p. 98.

이것이 기본측정변수가 된다. (별첨1 참고)

세째는 내용별 계량분석의 핵심과정으로 설정된 기본측정변수의 하위체계인 정밀측정변수에 일정한 수치(numerical value)를 부여하는 측정과정이다. 본 연구의 계량별 내용분석은 방대한 유인물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관계로 연구의 편의상 글자수를 기본측정변수로 한다. 여기에 분석대상이 되는 글자는 행동주체의 정책의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그렇기 때문에 측정대상이 되는 것이다.⁵³⁾ 측정기법의 첫 단계로서 문자의 수를 측정단위로 선정했으며 둘째단계는 그 문자에 관련된 상대적 빈도를 추정하기 위해 수치를 부여했다. 수치부여에는 최고+3에서 최하-3의 비중을 두었다.⁵⁴⁾

네째, 일단 이러한 가중치에 대한 수치부여의 원칙을 각 유인물의 양에 따라 장한 다음엔 실제의 수집된 유인물들을 위에서 설정된 원칙에 따라 수치를 부여하면서 측정 분석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앞에서 열거된 유인물을 내용별 내용분석을 하면 우선 일차적으로 정밀측정변수의 수치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유인물이 배포된 시기별로 재분류를 하면 일목요연하게 각 시기별로 학생운동의 흐름에서 강조된 내용을 적출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도출된 내용을 도표화하여 학생운동의 흐름을 분석하고 계량적 자료로 활용케 되는 것이다.

2. 분 석

이 곳에서는 앞에 이미 설정된 연구분석체계에 따라 수집된 유인물 등을 내용별 계량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고, 여기에서 결과되어 도출된 최종적 자료들을 가지고 학생운동이념의 흐름을 시대적으로 실증적 검증을 하였다.

(표 3, 도표 1)에서 보듯이 1960년대에는 “민주주의”(19.7%), 헌법(16.7%), 그리고 자유(11.0%)등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70년대에는 민족주의(22.8%), 자유(19.2%) 투쟁(13.3%)이며 80년대는 매관(8.9%), 노동(8.2%), 투쟁(7.8%)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60년대가 다소 당위적이고 이상적인 입장에서 민주주의나 자유,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표현하는 헌법에 관한 문제에 집착한 반면, 70년대부터는 물론 민주주의나 자유를 이상으로 하되 투쟁을 수단으로 한 현실참여라는 점을 학생운동에서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80년대에 와서는 이론이 보다 구체화되어 현실참여와 관계된 매관, 통일 및 노동문제에 관해 쟁점화 하고 있고,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쟁취

53) Holsti는 문서분석에 있어 관련된 문서는 주체의 의도가 행동으로 개체나 보어로서 표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Ole R. Holsti, "Evaluative Assertion Analysis", in Robert C North and Others(ed), *Content Analysis f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Crisis*(Evanston, Illinois: North Western University Press, 1963), p. 9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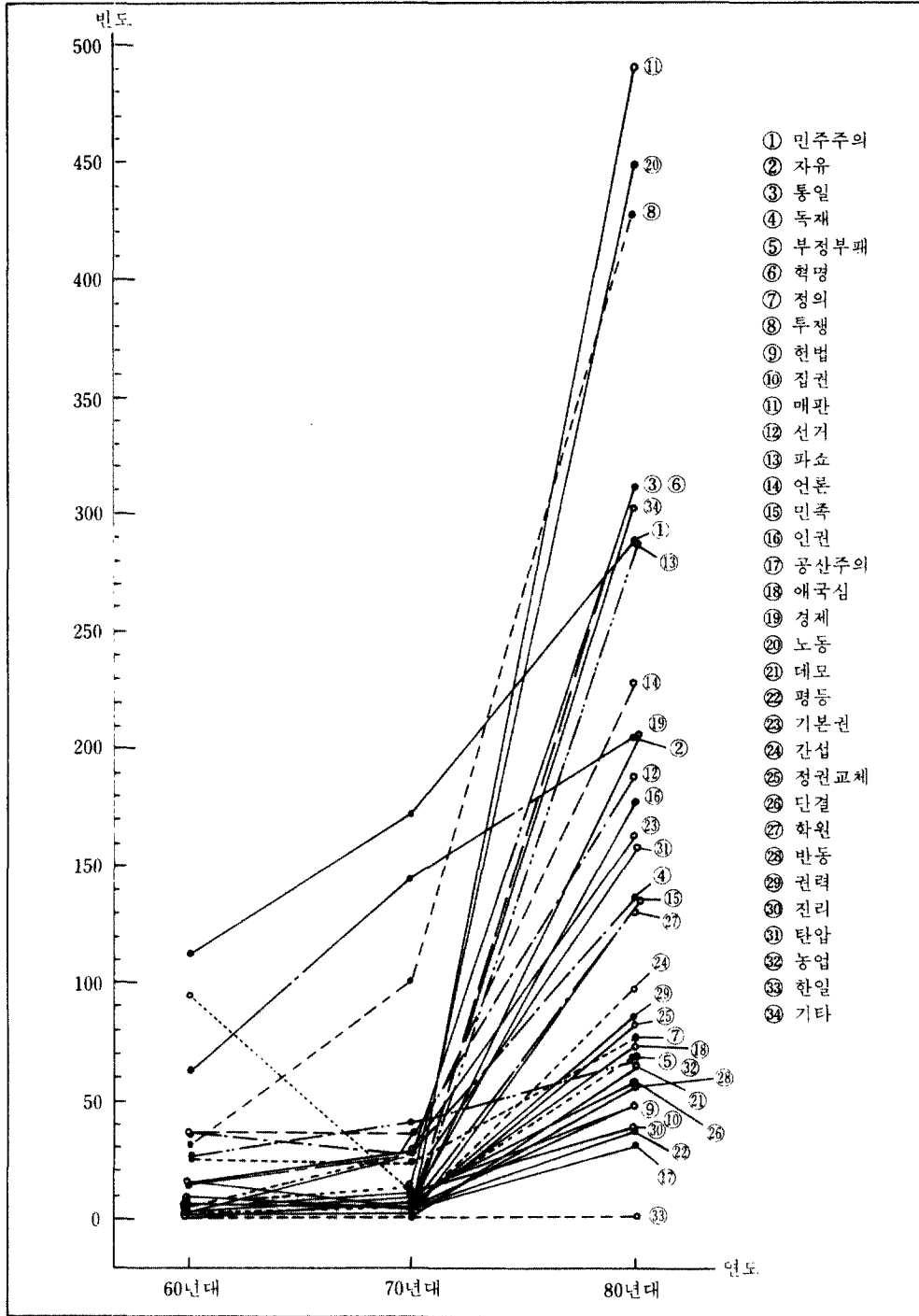
54) Charles E. Osgood, "The Representational Model and Relevant Research Method" in Ithelde Sola Pool(ed.), *Trends in Content Analysis*(Urbana, Ill.: th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59), p. 47. 최평길, 「공산권 연구방법론: 북한을 중심으로-내용별 계량분석」 「정경연구」, 152호(1977.10)와 153호(1977.11)에서 재인용.

〈표 3〉 종 합

項 目	年 代	60年代	70年代	80年代
民主主義		112(19.7%)	171(22.8%)	289(5.26%)
自統獨		62(11.0%)	144(19.2%)	204(3.7%)
不革正	正 腐	13(2.3%)	27(3.6%)	310(5.6%)
正開憲		35(6.2%)	27(3.6%)	136(2.5%)
執買選		26(4.6%)	40(5.3%)	67(1.2%)
斗言民		9(1.6%)	3(0.4%)	310(5.6%)
人共愛	產 主	24(4.3%)	22(2.9%)	76(1.4%)
勞苦	國	30(5.3%)	100(13.3%)	426(7.8%)
小平基		94(16.7%)	12(1.6%)	46(0.8%)
干政團		15(2.7%)	6(0.8%)	46(0.8%)
學反權		14(2.5%)	2(0.2%)	490(8.9%)
眞彈農		37(6.6%)	36(4.8%)	186(3.4%)
韓其		1(0.2%)	3(0.4%)	287(5.2%)
		0(0%)	27(3.6%)	226(4.1%)
		9(1.6%)	1(0.1%)	135(2.5%)
		0(0%)	12(1.6%)	177(3.2%)
		11(1.9%)	4(0.5%)	28(0.5%)
		3(0.6%)	6(0.8%)	71(1.3%)
		3(0.6%)	3(0.4%)	205(3.7%)
		0(0%)	9(1.2%)	449(8.2%)
		4(0.7%)	0(0%)	64(1.2%)
		1(0.2%)	4(0.5%)	35(0.6%)
		5(1%)	30(4%)	163(3%)
		0(0%)	4(0.5%)	97(1.8%)
		4(0.7%)	3(0.4%)	81(1.5%)
		1(0.2%)	8(1.1%)	57(1%)
		6(1.12%)	5(0.6%)	130(2.4%)
		2(0.4%)	1(0.1%)	55(1%)
		8(1.4%)	6(0.6%)	84(1.5%)
		4(0.7%)	11(1.5%)	37(0.7%)
		5(1%)	16(2.1%)	157(2.9%)
		0(0%)	4(0.5%)	67(1.2%)
		7(1.3%)	0(0%)	0(0%)
		18(3.2%)	3(0.4%)	302(5.5%)
綜 合		563(99.6%)	750(99.7%)	5493(99.9%)

하기 위한 수단도 이상적이거나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투쟁을 수단으로 하는 좌파적성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기할만한 점이다. 그리고 60년대와 70년대는 주로 민주주의, 자유, 독재, 부정, 부패, 선거 등이 주요쟁점으로 제기되지만 80년대에 와서는 민주주의, 매관자본, 노동문제, 통일, 투쟁, 민족자결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모색이 나오고 있고, 모든 항목에 끌고루 쟁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학생운동의 방향이 어느 한 특정한 이상적 쟁점의 범주에서 탈피되어 현실 적응적인 쟁점으로 다원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사회제도나 이념의 다원화경향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학생운동의 흐름을 이해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도표 1> 종 합



다음에는 기본측정변수를 보다 요약해서 핵심적인 변수만을 선정하여 심층분석을 해보았다. (표4, 도표2 참고) 여기 분석에서 고려된 기본측정변수는 민주주의, 자유·평등, 통일·민족, 독재·파쇼, 경제·매관, 학원, 기타의 7개로 집약하였다. 이러한 7개의 기본측정변수로 년도별, 빈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에는 민주주의(43.8%)와 독재타도(28.1%), 그리고 자유평등(21.9%)이 주된 학생운동의 쟁점이었고, 1964년에는 경제, 매관(29.4%), 통일·민족(29.4%) 그리고 독재파쇼타도(23.5%)가 주된 학생운동의 쟁점이었다. 1967년에는 민주주의수호(52.2%), 독재파쇼타도(26.1%)가 주된 학생운동의 쟁점이었으며 1969년에는 민주주의수호(37.5%), 자유평등(37.5%), 그리고 독재타도(25%)가 주된 학생운동의 쟁점이었다. 이상으로 볼 때 60년대의 주된 쟁점은 민주주의수호와 독재정권타도로 집약되어 질 수 있다.

1970년대에는 자유평등(36.7%), 통일민족(26.5%), 독재파쇼타도(22.4%)가 주된 학생운동의 쟁점이었다. 1973년엔 자유평등(54.5%), 독재파쇼타도(27.3%)가 주된 학생운동의 쟁점이었으며 1975년엔 민주주의수호(29%), 자유평등(29%), 독재파쇼타도(29%)가 주된 학생운동의 쟁점이었다. 이상으로 볼 때 70년대의 주된 쟁점은 자유평등으로 대변되는 민주주의의 수호와 이를 위해 독재정권을 타도하는 데 학생운동의 주관심이 경주되어 있음을 이해케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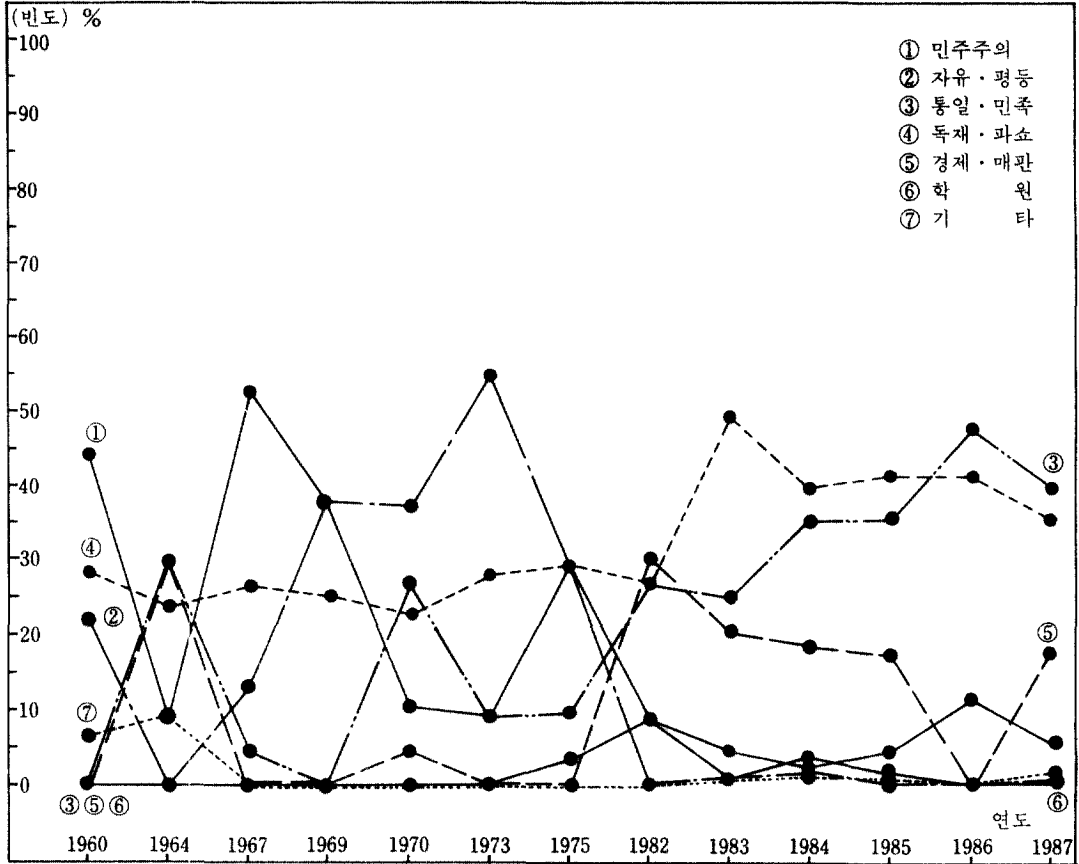
1982년에는 경제·매관(29.4%), 통일·민족(26.5%), 독재파쇼타도(26.5%)가 주된 학생운동의 쟁점이었고, 1983년에는 독재파쇼타도(48.8%), 통일·민족(24.5%), 경제·매관(20.1%)이 주된 학생운동의 쟁점이었다. 1984년에는 독재파쇼타도(39.2%), 통일민족(34.9%), 경제매관(18.1%)이 주된 학생운동의 쟁점이었고 1985년에는 독재파쇼타도(41.8%), 통일민족(35.1%), 경제매관(16.9%)이, 1986년에는 통일민족(47.5%), 독재파쇼타도(41.3%), 민주주의수호(11.3%)가 주된 학생운동의 쟁점이었으며, 1987년에는 통일민족(39.2%), 독재파쇼타도(35.4%), 경제매관(17.4%)이 주된 학생운동의 쟁점이었다.

이상으로 볼 때 80년대의 주된 쟁점은 미국을 위시한 외세를 배격하고 남북을 통일된 국가

〈표 4〉 학생운동 유인물에 나타난 주요쟁점의 7개 정밀측정변수의 연도별 빈도(%)

년 도	정밀측정변수	민주주의	자유·평등	통일·민족	독재·파쇼	경제·매관	학 원	기 타
1960		43.8	21.9	0	28.1			6.2
1964		8.8		29.4	23.5	29.4		8.8
1967		52.2	17.4	4.3	26.1			
1969		37.5	37.5		25.0			
1970		10.2	36.7	26.5	22.4	4.1		
1973		9.1	54.5	9.1	27.3			
1975		29.0	29.0	9.7	29.0		3.2	
1982		8.8		26.5	26.5	29.4	8.8	
1983		4.6	1.1	24.5	48.8	20.1	0.7	0.2
1984		2.3	1.2	34.9	39.2	18.1	3.3	1.0
1985		4.4	0.2	35.1	41.8	16.9	1.1	0.5
1986		11.3		47.5	41.3			
1987		5.7	0.8	39.2	35.4	17.4	0.4	1.1

<도표 2> 학생운동이념분석의 7개 정밀측정변수의 연도별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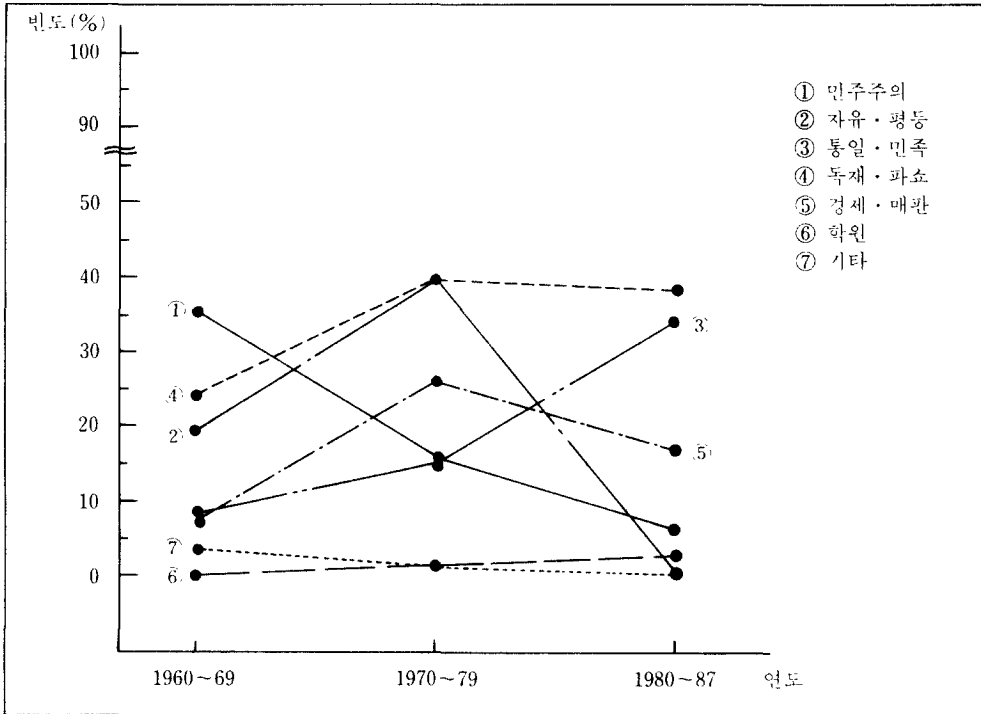


체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이를 방해하는 군부독재세력이나 매관자본가들을 혁명등의 방법을 통해 제거시키자는 것이 학생운동의 관심사임을 이해케하는 것이다. 이를 이해의 편의를 위해 다시 연대별로 분류하여 정리해 보았다. (표 5, 도표 3 참조) 위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60년대엔 민주주의, 독재파쇼타도가 70년대에는 자유평등, 독재파쇼타도가 80년대에도 군부 파쇼타도, 통일민족, 경제매관이 주된 쟁점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표 5> 학생운동 유인물에 나타난 주요 쟁점의 7개 정밀측정변수의 연대별 백분율(%)

정밀측정변수	민주주의	자유·평등	통일·민족	독재·파쇼	경제·매관	학원	기타
1960~1969	35.6	19.2	8.4	24.1	7.4	0	3.8
1970~1979	16.1	40.1	15.1	40.1	26.2	1.4	1.1
1980~1987	6.2	0.6	34.6	38.8	17.0	2.4	0.5

〈도표 3〉 학생 운동 이념의 7개 정밀측정변수의 연대별 중요도



V. 한국대학생의 학생운동에 관한 의식조사

1. 연구방법

이곳에서는 현재 한국대학생의 일반적인 정치이념 및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현지조사를 통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평가해 보았다. 여기에서 채택된 사회조사방법은 질문지 방법이며 전국의 대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고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전라, 경상, 제주, 기타(서울을 제외한 각 직할시를 의미)의 지역표본추출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된 대학생 629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치이념과 정치적 태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들에 대해 실시된 정치이념 및 태도조사는 문항 36개로 구성되어졌으며 이중 2개는 개방형 질문문항을 사용해 보다 폭넓은 의견수집을 피하도록 설계하였다. (별첨 2 참고) 작성된 질문지는 사전예비조사(pilot study) 과정을 거쳐 표본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조사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컴퓨터에 의해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의 백분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차검증(crosstabulation)분석기법에 의해 통계처리 되었다. 이와 병행해 비교분석적 시각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치이념 및 태도에 대한

현지조사도 의와 같은 연구설계과정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도 상기 분석기법에 따라 통계처리되었다. (별첨3 참고)

2. 분 석

본 분석의 체계적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여 통계처리된 자료를 정리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일반질문으로 주로 사회적 배경이나 가정적 배경등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된다.

둘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 및 체제관으로 학생들의 정치이념및 체제를 보는 시각을 살펴볼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된다.

셋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 안보관으로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시각 및 안보적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된다.

넷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관으로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된다.

다섯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운동관으로 학생들이 학생운동을 보는 시각과 그들의 태도및 행동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된다.

1) 일반질문

이곳에서는 조사대상이 된 대학생들의 성별, 학년, 전공계열, 군필여부, 출신지역, 생활수준들이 분석이 된다. (표 6) 우선, 성별을 보면 남자가 431명으로 68.5%를 차지하고 여자는 198명으로 31.5%를 차지하며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이 24.6%, 2학년이 25.9%, 3학년이 25.8%, 4학년이 23.5%가 되며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가 가장 높아 47.2%를 차지하고 그 다

<표 6> 일반질문

구 분	인 원 (%)			계
성 별	남 431(68.5)		여 198(31.5)	629(100)
학 년	1학년 155(24.6)	2학년 163(25.9)	3학년 162(25.8)	629(100)
	4학년 148(23.5)		무응답 1(0.2)	
계 열	인문·사회297(47.2)	이공238(37.8)	사범41(6.5)	629(100)
	농림·해양30(4.8)	의약 14(2.2)	예체능 8(1.3)	
	무응답 1(0.2)			
군 필	군필 220(35.0)	미필 224(35.6)		629(100)
	기타 140(22.3)	무응답 45(7.2)		
출 신 지역	서울·경기 128(20.3)		충청 86(13.7)	629(100)
	강원 57(9.1)		전라 122(19.4)	
	경상 200(31.8)		제주 25(4.0)	
	기타 9(1.4)		무응답 2(0.3)	
생 활 수 준	아주 잘산다 30(4.8)	약간 잘산다 47(7.5)		629(100)
	보통이다 386(61.4)	약간 못산다 128(20.3)		
	아주 못산다 36(5.7)	무응답 2(0.3)		

음으로 이공계열(37.8%), 사범계열(6.5%), 농림·해양계열(4.8%), 의약(2.2%), 예체능계열(1.3%) 순으로 되어있다. 군필여부를 보면 군필은 35.0%이고, 미필은 35.6%이며 기타가 22.3%이다. 기타가 이렇게 많은 것은 여학생들이 이 항목에 응답을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다음, 출신지역은 경상지역이 31.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경기(20.3%), 전라(19.4%), 충청(16.7%), 강원(9.1%), 기타(1.4%)순이며 생활수준별로 볼때 아주 잘산다가 4.8%, 약간 잘산다가 7.5%, 보통이다가 61.4%, 약간 못산다가 20.3%, 아주 못산다가 5.7%이다. 고교생의 일반질문의 경우를 보면 남학생은 48.7%이고 여학생은 51.3%의 구성비율을 지니고 있고, 학년은 1학년이 27.6%, 2학년이 49.2%, 3학년이 23.1%로 되어 있으며, 계열은 인문계가 73.4%이고 실업계가 26.6%로 되어 있다. 다음 출신지역은 서울·경기가 41.7%이고 충청이 9%, 강원 2%, 전라 5.5%, 경상 41.7%, 제주 0.5%, 기타 1.5%이다. 생활수준은 약간 잘산다가 10.1%, 보통이 74.4%, 약간 못산다가 13.1%, 아주 못산다가 2.5%이다.

2) 이념, 체제관

이곳에서는 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이념체제가 어느 것인가, 그리고 한반도 전쟁가능성, 제6공화국이후의 정국전개방향, 군의 정치관여정도, 한국의 당면위험요인들이 분석이 된다. (표 7)

〈표 7〉 이념·체제관

구 분	인 원(%)		계
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이념체제	자유민주주의제도 296(47.1)	공산사회주의제도 46(7.3)	629 (100)
	혼합절충제도 228(36.2)	별로 차이없음 50(7.9)	
	무응답 9(1.5)		
한반도 전쟁 가능성	아주 높다 36(5.7)	약간 높다 97(15.4)	629 (100)
	보통이다 107(17.0)	약간 낮다 163(25.9)	
	아주 낮다 222(35.3)	무응답 4(0.6)	
제 6공화국 이후의 정국 전개 방향	현 지도체제 계속 집권 164(26.1)		629 (100)
	여당내에서의 정권 승계 202(32.1)		
	야당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 107(17.0)		
	혁명, 정변에 의해 현정권 위기에 처함 134(21.3)		
군의 정치관여정도	전적으로 배제되어야 함 328(52.1)		629 (100)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극소화 217(34.5)		
	위기시의 질서 유지에는 참여 81(12.9)		
	현실성 고려할때 군이 정치 개입해야 3(0.5)		
한국의 당면 위험요인	북한의 위협 36(5.7)	경제적 불안정 67(10.7)	629 (100)
	민부격차 115(18.3)	내부정치모순 254(40.4)	
	가치관의 혼란 80(12.7)	부정부패 24(3.8)	
	강대국의 정치, 경제적 압력 50(7.9)	무응답 3(0.5)	

우선, 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이념체제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47.1%를 차지하고 있고, 혼합절충체제는 36.2%를 차지해 다수의 학생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이의 부분적 수정인 혼합절충체제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게한다. 어느 이념체제가 더 우월한가와 학생시위 참여도와의 교차검증관계를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선호할수록 학생시위에 참여하기 싫다(41.8%)고 하고 공산사회주의체제를 선호할수록 학생시위에 참여하고 싶다(76.1%)고 상반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점에서 미루어 볼때 학생시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일수록 좌경적 성향을 띤다고 하는 근거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8) 어느 이념체제가 더 우월한가와 북한사회수준 인식도와의 교차검증관계를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선호할수록 북한을 저개발 폐쇄사회(42.2%)로 보고 있으며 공산사회주의체제를 선호할수록 북한을 개발도상국(42.2%) 또는 중진국(44.4%)으로 보고 있다. 당면한 시각의 차이에 기인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9) 어느 이념체제가 더 우월한가와 노학연계투쟁에 대한 인식도와의 교차검증관계를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선호할수록 노학연계투쟁을 바람직하지않다고 보고(40.5%), 공산사회주의체제를 선호할수록 이를 바람직하다(67.4%)고 보고 있다. (표 10) 어느 이념체제가 더 우월한가와 혁명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를 교차검증하 보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선호한 학생일수록 급진폭력방법을 거부(58.3%)

<표 8> 이념체제 우월도와 학생시위 참여도와의 관계

	기꺼이 참여	어느정도 참여	참여하고 싶지않다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		ROW TOTAL
자유민주주의 체제 1	41 13.9 38.3 0.7	115 39.1 43.2 18.7	123 41.8 55.9 20.0	14 4.8 63.6 2.3	1 0.3 100.1 0.2	294 47.7
공산 사회주의체제 2	35 76.1 32.7 5.7	7 15.2 2.6 1.1	3 6.5 1.4 0.5	1 2.2 4.5 0.2		46 7.5
혼합절충체제 3	25 11.1 23.4 4.0	120 53.3 45.1 19.5	76 33.8 35.5 12.3	4 1.8 18.2 0.6		225 36.5
별로 차이없음 4	6 12.0 5.6 1.0	24 48.0 9.0 3.9	17 34.0 7.7 2.6	3 6.0 13.6 0.5		50 8.1
5			1 100.0 0.5 0.2			1 0.2
COLUMN TOTAL	107 17.4	226 43.2	220 35.7	22 3.6	1 0.2	616 100.0

CHI-SQUARE : 135.78993 D.F. : 16 SIGNIFICANCE : 0.0000

〈표 9〉 이념체제 우월도와 북한사회수준 인식도와의 관계

	저개발 개척사회	개발 도상국	중진국	선진공업국	잘모르겠음	ROW TOTAL
자유민주주의 제도 1	124	81	15	6	68	294 48.3
	42.2	27.6	5.1	2.0	23.1	
	57.9	40.5	26.8	100.0	51.1	
	20.4	13.3	2.5	9.9	11.2	
공산사회주의 제도 2	3	19	20		3	45 7.4
	6.7	42.2	44.4		6.7	
	1.4	9.5	35.7		2.3	
	0.5	3.1	3.3		0.5	
혼합 절충제도 3	72	81	18		50	221 36.3
	32.6	36.7	8.1		22.6	
	33.6	40.5	32.1		37.6	
	11.8	13.3	2.9		8.2	
별로 차이없음 4	14	19	3		12	48 7.9
	29.1	39.6	6.3		25.0	
	6.5	9.5	5.4		9.0	
	2.3	3.1	0.5		2.0	
5	1					1 0.2
	100.0					
	0.5					
	0.2					
COLUMN TOTAL	214 35.1	200 32.8	56 9.2	6 1.0	133 21.8	609 100.0

CHI-SQUARE : 101.17166 D.F. : 16 SIGNIFICANCE : 0.0000

〈표 10〉 이념체제 우월도와 노학연계투쟁에 대한 인식도와의 관계

	극히 바람직	문제있으나 어느정도 바람직	바람적하지 않음	극히 바람적하지 않음		ROW TOTAL
자유 민주주의제도 1	38	102	119	35		294 48.0
	12.9	34.7	40.5	11.9		
	36.9	43.2	60.1	46.7		
	6.2	16.6	19.4	5.7		
공산 사회주의제도 2	31	12	1	1	1	46 7.5
	67.4	26.1	2.2	2.2	2.2	
	30.1	5.1	0.5	1.3	100.0	
	5.1	2.0	0.2	0.2	0.2	
혼합절충 제도 3	31	101	60	32		224 36.5
	13.8	45.1	26.8	14.3		
	30.1	42.8	30.3	42.7		
	5.1	16.5	9.8	5.2		
별로 차이없음 4	3	20	18	7		48 7.8
	6.3	41.7	37.5	14.5		
	2.9	8.5	9.1	9.3		
	0.5	3.3	2.9	1.1		

5		100.0 0.4 0.2				1 0.2
COLUMN TOTAL	103 16.8	236 38.5	198 32.3	75 12.2	1 0.2	613 100.0

CHI-SQUARE : 122.90466 D.F. : 16 SIGNIFICANCE : 0.0000

하는데 반해, 공산사회주의제도를 선호한 학생일수록 혁명은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56.5%)고 보고 있다. (표 11) 다음, 한반도 전쟁가능성에 대해선 아주 낮다가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약간 낮다로 25.9%를 나타내고 이다. 이를 볼 때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다소 낮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6공화국 이후의 정국전개방향에 대해선 여당내에서의 정권승계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에 대해 32.1%가 응답을 하고 그 다음 현지도체제의 계속집권에 26.1%가 응답을 하고 있음을 볼때, 향후 전국전개방향은 현 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보임이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 군의 정치관여정도에 대해선 선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52.1%이고, 배제할 수 없으나 극소화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4.5%임을 고려해 볼때 군의 정치관여에 대해선 부정적임을 일 수 있다. 그리

<표 11> 이념체제 우월도와 혁명의 필요성 인지도와의 관계

	전혀 불필요	저항해선 안됨	급진폭력방법은 거부	혁명적 방법도 가능	혁명은 절대 필요	ROW TOTAL
자유민주주의 제도 1	4 1.4 57.1 0.6	7 2.4 50.0 1.1	172 58.3 57.0 27.9	92 31.2 40.5 40.5	20 6.8 30.3 3.2	295 47.9
공산사회주의 제도 2	1 2.2 14.3 0.2	1 2.2 7.1 0.2	2 4.3 0.7 0.3	16 34.8 7.0 2.6	26 56.5 39.4 4.2	46 7.5
혼합절충 제도 3	1 0.4 14.3 0.2	6 2.7 42.9 9.7	106 47.1 35.1 17.2	94 41.8 41.4 15.3	18 8.0 27.2 2.9	225 36.5
별로 차이없음 4	1 2.0 14.3 0.2		21 42.9 7.0 3.4	25 51.0 11.0 4.1	2 4.1 3.0 0.3	49 8.0
5			1 100.0 0.3 0.2			1 0.2
COLUMN TOTAL	7 1.1	14 2.3	302 49.0	227 36.9	66 10.7	616 100.0

CHI-SQUARE : 133.32581 D.F. : 16 SIGNIFICANCE : 0.0000

고 한국의 당면위협요인으로 내부정치모순(40.4%)을 으뜸으로 꼽는데 반해 북한의 위협(5.7%)은 낮게 평가함으로써 국내문제가 대외문제보다 더 급박함을 시사하고 있다. 고교생의 이념, 체제관을 보면 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이념체제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체제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55.8%를 차지하고 있고, 혼합절충제도는 33.7%를 차지해 다수의 학생이 자유민주주의체제나 이의 부분수정인 혼합절충제도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생보다 더욱 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전쟁가능성에 대해선 약간 높다가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보통이다로 21.1%를 나타내고 있어 대학생보다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더욱 높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제6공화국이후의 정국전개방향에 대해선 야당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에 28.1%가 응답했고 현지도체제의 집권이 계속될 것이란 점엔 27.1%가 응답해 어느정도 현집권체제의 변화를 시사하면서도 조심스럽게 현체제유지의 가능성을 관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군의 정치참여정도에 대해선 위기시 실서유지를 위해선 참여가능하다는데 38.2%가 응답했고,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극소화해야 한다는데 30.7%가 응답한 것으로 보아 대학생보다 군의 정치개입에 대해 보다 관용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당면위협요인으로 내부정치모순(26.6%), 빈부격차(23.6%) 등을 내세우므로써 한국의 국내적 요인에 관심을 두는 대학생의 생각과 어느정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3) 통일·안보관

이곳에서는 남북통일가능성·통일후 정치이념체제, 남·북한 어느 쪽이 통일에 더 적극적인가, 남북한 통일의 근본서해요인, 미군의 한국수둔 그리고 6·25 재발시 행동유형에 대한 분석이 된다. (표 12) 우선 남북통일가능성에 대해 노력하면 가능(34.5%), 조금 어려울 것임(30.0%), 미지않아 실현될 것임(8.6%) 등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는 입장이며, 통일후 정치이념체제에 대해선 자본주의중심 혼합체제(55.8%), 자본주의체제(18.3%)를 주로 선택함으로써 자본주의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 체제변화를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으나 공산주의체제선호(4.6%)나 공산주의중심혼합체제(9.1%)도 15% 가까이 되는 것을 볼 때 급진적 체제변혁에 대한 의견도 세고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다음 남·북한 어느 쪽이 통일에 더 적극적인가에 대해 양쪽 모두 소극적이란 응답이 65.8%를 차지해 통일에 대한 남·북당국의 무성의를 지적하고 있으며, 다음이 한국(11.3%)이 북한(18.3%)보다 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통일문제에 있어 한국의 당국에 대해 실망과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해 볼 수 있다. 통일에 대해 한국과 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적극적인가와 미군철수시각과를 서로 교차검증해본 결과 한국이 통일에 대해 더 적극적이라고 보는 입장의 경우 미군철수시각은 단계적 철수(28.2%)를 주장하는데 반해 북한이 통일에 대해 더 적극적이라고 보는 입장의 경우는 당장철수(50.4%)를 주장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학생이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있어 보다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표 13) 다음 남·북한 중 어느 쪽이 통일에 대해 더 적극적인가에 대한 인식과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과의 관계를 교차검증해 본 결과 한국이 남·북한 통일에 더 적극적이라고 보는 학생들은 통일저해요인으로 남북한 상호불신(32.4%)을 들고 있다. 북한이 통일에 더 적극적이라고 보는 학생들 중에도 통일저해요인 중 하나로 현지도부의 무성의(8.5%)를 지적하고 있으나 북한이 통일에 더 적극적이라고 보는 학생들은 북한의 무성의에 대해선 한명도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표 12> 통일·안보관

구분	인원(%)		계
남북 통일 가능성	절대로 불가능	30(4.8)	매우 어려움 139(22.1)
	조금 어려움	189(30.0)	노력하면 가능 217(34.5)
	머지 않아 실현		54(8.6)
통일후 정치이념체제	자본주의체제	115(18.3)	공산주의체제 29(4.6)
	자본주의 중심 혼합체제		351(55.8)
	공산주의 중심 혼합체제		57(9.1)
	공산주의 체제 재외한 어느 체제도 좋음		62(9.9)
	무응답		15(2.4)
남·북한 어느쪽이 통일에 더 적극적	한국	71(11.3)	북한 115(18.3)
	양쪽모두 적극적	25(4.0)	양쪽모두 소극적 414(65.8)
	무응답		4(0.6)
남·북한 통일의 근본저해요인	사상체제대립	103(16.4)	미, 소, 중, 일의 이해대립 117(18.6)
	한국지도부의 무성의	80(12.7)	북한지도부의 무성의 7(1.1)
	남북한 상호불신	154(24.5)	남북한의 국내정치불안 21(3.3)
	남북한의 심화된 이질감	142(22.6)	
미군의 한국주둔	미군주둔계속	48(7.6)	한국이 북한보다 군사력 우세할때 까지 연기 65(10.3)
	동등할 때까지 연기	59(9.4)	단계적 철수 336(53.4)
	당장 철수	117(18.6)	무응답 4(0.6)
6·25새발시 행동유형	최선방 참여	135(21.5)	현재의 말은바 임무충실 188(29.9)
	1.2때가봐서 결정	211(33.5)	안전한 곳으로 피신 38(6.0)
	어느 체제하에서나 현재대로 살것음		35(5.6)
	무응답		22(3.5)

<표 13> 통일에 대한 적극도와 미군철수시각과의 관계

COUNT ROW PCT COL PCT TOT PCT	미군주둔 계속	북한군사력보다 우세해질때까지 철수연기	동등해질때 까지 연기	단계적 철수	당장 철수	ROW TOTAL
한국	12 16.9	17 23.9	8 11.3	20 28.2	14 19.7	71
1	25.0 1.9	26.2 2.7	13.6 1.3	6.0 3.2	12.2 2.3	11.4
북한	4 3.4	8 7.0	7 6.1	38 33.0	58 50.4	115
2	8.3 0.6	12.3 1.3	11.9 1.1	11.4 6.1	50.4 9.3	18.5
양쪽모두 적극적	1 4.2	2 8.3	4 16.7	13 54.2	4 16.7	24
3	2.0 0.2	3.1 0.3	6.8 0.6	3.9 2.1	3.5 0.6	3.9

양쪽모두	31	38	40	263	39	
소극적	7.5	9.2	9.7	64.0	9.5	411
4	64.6	58.5	67.8	78.7	33.9	66.2
	5.0	6.1	6.5	42.4	6.3	
COLUMN TOTAL	48	65	59	334	115	621
	7.7	10.5	9.5	53.8	18.5	100.0

CHI-SQUARE : 135.42973 D.F. : 12 SIGNIFICANCE : 0.0000

통일문제에서도 북한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편향된 시각이 학생층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일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4)

다음 남북한 통일근본저해요인으로 남북한 상호불신(24.5%)을 가장 높게 지적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남북한의 심화된 이질화(22.6%), 미·소·중·일의 이해대립(18.6%)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학생들은 남·북한 간의 상호불신과 이질화가 통일의 가장 커다란 장애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군의 한국주둔에 대해선 단계적 철수가 53.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당장철수로 18.6%이다. 이에 반해 계속주둔이 7.6%, 한국이 북한보다 군사적으로 우세할 때까지 연기(10.3%)등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응답되었다. 이를 볼때 학생들은 한국의 정치적·군사적·전략적 관점보다, 주한미군철수라는 사안 자체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반미감정, 민족주의, 외세배격 움직임과 연계되어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한 시각에 대한 학생들의 시각에 대한 관계를 교차검증해 본 결과 주한미군의 한반도주둔을 남·북한 세력균형이

<표 14> 통일에 대한 적극도와 통일근본저해요인과의 관계

	사상체계 대립	미·소·중·일 이해관계대립	한국지도부 무성의	북한 무성의	남북한 상호불신	남북한 국내정치불안	남북한 심화된 이질화	ROW TOTAL
한국	19	8	6	3	23	1	11	
1	26.8	11.3	8.5	4.2	32.4	1.4	15.5	71
	18.6	6.8	7.6	50.0	14.9	4.8	7.8	11.5
	3.1	1.3	1.0	0.5	3.7	0.2	1.8	
북한	20	27	32		19	6	11	
2	17.4	23.5	27.8		16.5	5.2	9.6	115
	19.6	23.0	40.5		12.3	28.6	7.8	18.5
	3.2	4.4	5.2		3.1	1.0	1.8	
양쪽 모두 적극적	5	1	3		9	3	4	
3	20.0	4.0	12.0		36.0	12.0	16.0	25
	4.9	0.9	3.8		5.8	14.3	2.8	4.0
	0.8	0.2	0.5		1.5	0.5	0.6	
양쪽 모두 소극적	58	81	38	3	103	11	115	
4	14.2	19.8	9.3	0.7	25.2	2.7	28.1	409
	56.9	69.2	48.1	50.0	66.9	52.4	81.2	66.0
	9.4	13.1		0.5	16.6	1.8	18.6	
COLUMN TOTAL	102	117	79	6	154	21	141	620
	16.5	18.9	12.7	1.0	24.8	3.4	22.7	100.0

CHI-SQUARE : 77.72156 D.F. : 18 SIGNIFICANCE : 0.0000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연기 또는 단계적 철수를 하자는 학생들일수록 운동권학생들이 좌경화되었다는 의견에 대해 어느정도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반해 당장 철수해야 한다는 학생들은 운동권학생들이 좌경화되었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표 15) 그리고 6·25재발시 행동유형으로 그때 가봐서 결정하겠다는 유보적 태도가 33.5%나 되나, 최전방참여는 21.5%밖에 되지 않아 현재 학생들의 안보관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다. 고교생의 통일·안보관을 보면 우선 남북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조금 어려울것임(31.7%), 매우 어려울것임(28.1%) 등과 같은 비관적 입장에 의견이 쏠림으로써 대학생보다 다소 통일의 전망에 대해 비관적이며 통일후 정치이념체제에 있어서도 자본주의중심 혼합체제(58.8%), 자본주의체제(31.7%)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대학생보다 자본주의 선호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북한 어느 쪽이 통일에 더 적극적이냐에 대해선 양쪽 모두 소극적(45.2%)이라고 해서 남북당국에 대한 불만을 시사하면서도 한국이 더 적극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2.2%나 되어 대학생보다 한국측의 통일의 적극성을 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음 남·북한 통일근본저해요인으로 사상체계대립(29.6%)을 남북간의 심화된 이질화(27.6%)보다 높게 평가함으로써 대학생보다 현실적인 측면보다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의식을 더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미군의 한국주둔에 대해선 단계적 철수가 44.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할 때까지 연기하자고 하는 의견이 21.6%이고 미군주둔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18.6%인 것으로 보아 대학생보다 미군주둔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는 것으로 볼

〈표 15〉 주한미군에 대한 시각과 운동권에 대한 시각과의 관계

	좌경화되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	어느 정도동의	동의할 수 없음	전적으로 동의못함	ROW TOTAL
미군주둔계속 1	6	14	23	5	48
	12.5	29.1	47.9	10.4	7.8
	26.1	5.9	9.0	4.8	
	1.0	2.3	3.7	0.8	
북한 군사력보다 우세해질때까지 철수연기 2	4	35	19	7	65
	6.2	53.8	29.2	10.8	10.5
	17.4	14.8	7.5	6.7	
	0.6	5.7	3.1	1.1	
동등해질때까지 연기 3	2	32	19	5	58
	3.4	55.2	32.8	8.6	9.4
	8.7	13.5	7.4	4.8	
	0.3	5.2	3.1	0.8	
단계적 철수 4	7	150	147	29	333
	2.1	45.0	44.1	8.7	53.8
	30.4	63.3	57.6	27.9	
	1.1	24.2	23.7	4.7	
당장 철수 5	4	6	47	58	115
	3.5	5.2	40.9	50.4	18.6
	17.4	2.5	18.4	55.8	
	0.6	1.0	7.6	9.4	
COLUMN TOTAL	23	237	255	104	619
	3.7	38.3	41.2	16.8	100.0

CHI-SQUARE : 159.44512 D.F. : 12 SIGNIFICANCE : 0.0000

수 있다. 그리고 6·25재발시 행동유형으로 현재의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겠다는 의견이 35.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그때 가봐서 결정하겠다는 유보적 의견이 32.2%인데 반해 최전방참여는 16.6%밖에 안되어 대학생과 같이 안보관에 있어선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북한관

이곳에서는 현재 북한사회의 수준과 남북한의 이질화 정도에 대한 분석을 한다. (표 16) 우선 현재 북한사회의 수준에 대해 빈곤한 저개발 폐쇄사회(34.0%), 개발도상국(31.8%) 등의 응답이 많이 나와 북한사회를 아직은 폐쇄적이고 발달이 미약한 나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중진국(9.5%), 선진공업국(1.0%)이라고 보는 학생들도 1할이 되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 중에 북한을 잘사는 나라 또는 발전이 되고 있는 나라로 긍정적 시각에서 보려는 입장이 존재함을 알게 된다. 다음 북한사회를 어느정도 수준으로 보는가와 운동권 학생들의 좌경화의견에 대한 시각에 대한 관계를 교차검증해 본 결과 북한을 개발이 덜 되고 폐쇄적인 사회로 볼수록 운동권의 좌경화 의견에 어느정도 동의를 나타내고 북한을 개발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볼수록 운동권의 좌경화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표 17) 다음 남북한의 이질화 정도에 대해 어느정도 이질화 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7.9%나 되고 이념·체제를 초월해서 동화될 수 있다고 보는 학생도 13.0%나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질화 정도의 해소를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학생들에게서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고교생의 북한관을 보면 우선 북한사회의 수준에 대해 저개발 폐쇄사회라는 것이 40.2%로 가장 비율이 높고 그 다음이 선진공업국(26.1%)으로 나타나 대학생보단 북한에 대해 보다 깊이있게 알지 못하고 매스컴이나 학교교육이나 막연한 상상등에 의해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의 이질화 정도에 대해 시간이 흐르면 동화가가능하다는 의견이 55.8%, 이질화 심화가 28.6%로 이질화 해소를 다소 낙관적으로 보면서도 대학생보단 약간 이질화심화 쪽으로 보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 16〉 북한관

구 분	인 원 (%)		계
현재 북한사회는 어느정도	빈곤한 저개발 폐쇄사회 214(34.0)		629 (100)
	개발도상국 200(31.8)	중진국 60(9.5)	
	선진공업국 6(1.0)	잘 모르겠음 136(21.6)	
	무응답 13(2.1)		
남북한의 이질화는 어느정도	통일 불가능할 정도로 이질화 심화 106(16.9)		629 (100)
	어느 정도 이질화, 시간이 지나면서 동화 364(57.9)		
	이념, 체제를 초월해 동화될 수 있음 82(13.0)		
	이질화 존재 않으며 정치적 조작 72(11.4)		
	무응답 5(0.8)		

<표 17> 북한사회 인식수준과 운동권에 대한 시각과의 관계

COUNT ROW PCT COL PCT TOT PCT	운동권 학생들 좌경화에 선적으로 동의	어느정도 동의	동의할 수 없음	전적으로 동의못함	ROW TOTAL
북한은 빈곤한 서개발체사회 1	8 3.7 34.8 1.3	128 59.8 54.0 20.9	58 27.1 23.2 9.5	20 9.3 9.6 3.3	214 35.0
개발도상국 2	9 4.5 39.1 1.5	53 26.8 22.4 8.7	91 45.9 36.4 14.8	45 22.7 44.1 7.4	198 32.4
중진국 3	2 3.4 8.7 0.3	11 18.9 4.6 1.8	19 32.8 7.6 3.1	26 44.8 25.5 4.2	58 9.5
신신평업국 4	0 0 0 0	0 0 0 0	6 100 24.0 1.0	0 0 0 0	6 1.0
잘모르겠음 5	4 2.9 17.4 0.7	45 33.1 18.9 7.4	76 55.9 30.4 12.4	11 8.1 10.8 1.8	136 22.2
COLUMN TOTAL	23 3.8	237 38.7	250 40.8	102 16.7	612 100.0

CHI-SQUARE : 112.58625 D.F. : 12 SIGNIFICANCE : 0.0000

5) 학생운동관

이곳에서는 현재의 한국은 권위적인 체제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현재 가입해 활동하는 씨클성격, 교수와의 인간관계, 혁명의 필요성 여부, 학생운동 이념의 타당성 여부, 학생시위의 참여인식도, 미국의 정치·경제적 간섭의 인식도, 노사분규 원인, 노학연계투쟁을 보는 시각, 학생운동의 주쟁점, 학생운동이 과격화되는 이유, 시위에 적극 가담하는 학생비율에 대한 인지도, 일부 운동권 학생의 좌경화의견에 대한 인지도, 학생시위의 범위와 방법의 변모양태전망들이 분석된다. (표 18, 19) 우선 현재의 한국은 권위적인 체제인가에 대해 확실히 그렇다(52.1%), 어느정도 그렇다(37.4%)라고 응답한 학생이 다수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학생들의 상당수가 현재의 한국을 권위적인 체제로 보고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권위적인 이유에 대해선 민중을 배제한 형식적 민주주의가 지배적이며 (34.7%), 군부정권의 집권(28.8%), 경제적 구조모순(16.4%)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는 현 정치체제의 정통성과 경제적 분배의 왜곡에서 오는 불신, 불만들이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한국이 권위적 체제인가와 학생운동 과격화이유와를 서로 교차검증 해 본 결과 한국이 확실히 권위적 체제라고 보는 학생의 경우 정부의 탄압(42.7%)

〈표 18〉 학생운동관

구 분	인 원 (%)		계				
현재의 한국은 권위적인 체제인가	확실히 그렇다	328(52.1)	어느 정도 그렇다	235(37.4)	629 (100)		
	그렇지 않다	54(8.6)	확실히 그렇지 않다	10(1.6)			
	무응답	2(0.3)					
만약 권위적인 국가라면 그 이유는	형식적 민주주의	218(34.7)	경제적 구조모순	103(16.4)	629 (100)		
	군부정권의 집권	181(28.8)	성체발전지상주의	29(4.6)			
	유교 및 식민분화유산	77(12.2)	무응답	21(3.3)			
현재 가입해 활동하는 세력성격	레크레이션세력	76(12.1)	교양세력	151(24.0)	629 (100)		
	이념세력	50(7.9)	사교세력	63(10.0)			
	기타	222(35.3)	무응답	67(10.7)			
교수와의 인간관계	아주 원만	60(9.5)	어느 정도 원만	357(56.8)	원만치않음	175(27.8)	629 (100)
	아주 원만치 않고 불편	35(5.6)	무응답	2(0.3)			
대중운동이나 혁명 에 대한 시각	신허 불필요	7(1.1)	국민은 통치자의 의사존중, 저항안됨	14(2.2)	629 (100)		
	저항권 인정, 급진폭력방법은 거부	305(48.5)	국민의사 수렴 불가시 혁명적방법가능	228(36.2)			
	역사발전 원동력, 지속적으로 계속	70(11.1)	무응답	5(0.8)			
학생운동에서 주장 하는 이념에 대한 귀하의견	전적으로 타당	93(14.8)	어느 정도 타당	370(58.8)	629 (100)		
	약간 타당치 않음	136(21.6)	매우 타당 못함	23(3.7)			
	무응답	7(1.2)					
현재의 학생시위에 어느정도 참여하고 싶나	기꺼이 참여	110(17.5)	어느정도 참여	269(42.8)	참여하고 싶지 않음	221(35.1)	629 (100)
	절대로 불참	22(3.5)	무응답	7(1.2)			
미국의 정치·경제적 간섭이	아주 심하다	353(56.1)	약간 심하다	222(35.3)	심하지 않다	47(7.5)	629 (100)
	전혀 심하지 않다	6(1.0)	무응답	1(0.2)			
노사분규 원인	비인간적 처우와 낮은 임금(wage)	311(49.4)			629 (100)		
	정치적 모순	58(9.2)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	36(5.7)			
	노동자, 사용자간의 대화부족과 상호불신	193(30.7)					
	외부세력의 선동	25(4.0)	무응답	6(1.0)			

〈표 19〉 학생운동관

구 분	인 원 (%)		계		
노학연계투쟁을 어떻게 보나	학생선동, 노동자가 주가되는 바람직함		105(16.7)	629 (100)	
	어느 정도 문제 있으나 바람직		240(38.2)		
	긍정적면 있으나 바람직못함		199(31.6)		
	바람직하지 못함	75(11.9)	무응답		10(1.6)
학생운동에서의 주요이슈(쟁점)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한 공산화		29(4.6)	629 (100)	
	하급계급을 위한 사회건설	69(11.0)	부정부패항거		105(16.7)
	반독재민주주의	254(40.4)	군부정치참여배제		25(4.0)
	반외세 민족자립	87(13.8)	학교내외의 문제점개선		11(1.7)
	남북통일	40(6.4)	무응답		9(1.4)

학생운동과 격화되는 이유	운동권 학생들의 오판 및 영용심리 74(11.8)					629 (100)
	사회 모순구조의 악화 208(33.1)					
	학생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 129(20.5)					
	학생운동에 대한 정부탄압강화 211(33.5)					
	무응답 7(1.1)					
시위에 적극 가담하는 학생비율	2%미만 99(15.7)	3-5% 211(33.5)	6-10% 131(20.8)	11-15% 57(9.1)	16-20% 49(7.8)	629 (100)
	21-25% 20(3.2)	26-30% 30(4.8)	31-35% 8(1.3)	36%이상 14(2.2)	무응답 10(1.6)	
일부운동권학생의 과경화 의견에 대해	진적으로 동의 23(3.7)		어느정도 동의 239(38.0)			629 (100)
	동의할 수 없음 256(40.7)		진적으로 동의할 수 없음 104(16.5)			
	무응답 7(1.1)					
학생시위의 범위와 방법이 어떻게 변모될지	매우 과격히 확대 60(9.5)		다소 확대 250(39.7)			629 (100)
	현상태 지속 193(30.7)		온건방향 축소 87(13.8)			
	축소, 퇴퇴 33(5.2)		무응답 6(1.0)			

이 학생운동을 과격하게 만든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반해 한국이 권위적 체제라고 보긴 어렵다고 보는 학생의 경우 사회모순구조의 악화(42.7%)를 과격화의 이유로 보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이 권위적이라고 볼수록 정부의 탄압으로 보고, 그렇게 안 볼수록 사회모순구조의 악화로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0)

<표 20> 한국 권위적 체제 인정도와 학생운동과 격화 이유와의 관계

	운동권 오판 및 영용심리	사회모순구조 악화	학생들의 주장 안 받아 들여짐	정부의 탄압	ROW TOTAL
확실히 그렇다 1	18	105	62	138	323
	5.6	32.5	19.2	42.7	52.0
	24.3	50.7	48.1	65.4	
어느정도 그렇다 2	2.9	16.9	10.1	22.2	
	40	77	54	63	234
	17.1	32.9	23.1	19.5	37.7
그렇지 않다 3	54.1	37.2	41.9	29.9	
	6.4	12.4	8.7	10.1	
	15	22	8	9	54
확실히 그렇지 않다 4	27.8	40.7	14.8	16.7	8.7
	20.3	10.6	6.2	4.3	
	2.4	3.5	1.3	1.4	
COLUMN TOTAL	1	3	5	1	10
	10.0	30.0	50.0	10.0	1.6
	1.4	1.4	3.9	0.5	
	0.2	0.5	0.8	0.2	
	74	207	129	211	621
	11.9	33.3	20.8	34.0	100.0

CHI-SQUARE : 51.78000 D.F. : 9 SIGNIFICANCE : 0.0000

다음 현재 가입해 활동하는 씨클의 성격은 이념씨클(7.9%)이 다른 씨클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이념씨클에 대해 다른 씨클보다 관심이 적은 것을 일 수 있게 한다. 다음 학생들이 가입하고 있는 씨클의 성격과 학생시위 참여도와의 관계를 교차검증해 본 결과 이념씨클에 가입한 학생들이 학생시위에 참여하겠다는 비율(55.1%)이 다른 씨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 그리고 교수와의 인간관계에 있어선 어느정도 원만하다가 56.8%이고 아주 원만이 9.5%로 나타나 약 70%가까운 정도의 학생이 교수와의 인간관계가 원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약 30%가 다소 넘는 학생들이 교수와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중운동이나 혁명의 필요성에 대해선 저항권은 인정하되 급진폭력방법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8.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국민의 의사수렴방식엔 혁명적 방법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36.2%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혁명의 절대적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11.1%나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표 21> 씨클 성격과 학생시위 참여도와의 관계

COUNT ROW PCT COL PCT TOT PCT	기꺼이참여	어느정도 참여	참여하기 싫음	절대로 불참		ROW TOTAL
레크레이션 씨클 1	15 19.7 15.1 2.7	24 31.6 10.2 4.3	35 46.1 17.2 6.3	2 2.6 9.5 0.4		76 13.6
교양씨클 2	26 17.6 26.2 4.7	72 48.6 30.8 12.9	39 26.4 19.2 7.0	10 6.8 47.6 1.8	1 0.7 100.0 0.2	148 26.5
이념씨클 3	27 55.1 27.2 4.8	19 38.8 8.1 3.4	3 6.1 1.5 0.5			49 8.8
사교씨클 4	7 11.1 7.0 1.3	16 25.4 6.8 2.9	38 60.3 18.7 6.8	2 3.2 9.5 0.4		63 11.3
기 타 5	24 10.8 24.2 4.3	102 46.2 43.6 18.3	88 39.8 43.3 15.7	7 3.2 33.3 1.3		221 39.6
		1 100.0 0.4 0.2				1 0.2
COLUMN TOTAL	99 17.7	234 41.9	203 36.4	21 3.8	1 0.2	558 100.0

CHI-SQUARE : 93.94556 D.F. : 20 SIGNIFICANCE : 0.0000

급진적인 방법은 어느정도 거부하나 자신들의 목적이나 가치를 달성키 위해선 폭력적 혁명방법도 불가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혁명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와 운동권에 대한 학생들의 시각에 대한 관계를 교차검증해 본 결과 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생일수록 운동권의 좌경화 의견에 반대하고 있으며 혁명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학생일수록 운동권의 좌경화 의견에 동의할 하고 있다. (표 22) 다음 학생운동의 이념에 대한 타당성 인지도에 있어서 어느정도 타당하다가 58.8%로써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여 주었고 그 다음이 약간 타당치 않다가 21.6%, 전적으로 타당하다가 14.8%, 매우 타당하지 못하다가 3.7%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볼 때 학생운동이념에 대해 7할이 넘는 학생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학생시위에 어느정도 참여하고 싶은가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참여하고 싶다가 42.8%로써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참여하고 싶지않다(35.1%), 기꺼이 참여하겠다(17.5%),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3.5%)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볼 때 6할이 넘는 학생이 기회만 주어진다면 학생시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개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현실참여적 성향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 학생시위에 기회가 주어지면 참여하겠는가에 대한 질문과 운동권 학생들이 좌경화되었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을 상호 교차검증해 본 결과 학생시위에 참여치 않겠다고 하는 학생일수록 운동권 학생들이 좌경화되었다고 보는

〈표 22〉 혁명 필요 인지도와 운동권에 대한 시각과의 관계

	좌경화되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	어느 정도 동의	동의할 수 없음	전적으로 동의못함	ROW TOTAL
혁명불필요	2	4	1	0	7
1	28.5	57.1	14.3	0	1.1
	8.7	16.9	0.4	0	
	0.3	0.6	0.1	0	
저항해선안됨	0	9	4	1	14
2	0	64.3	28.6	7.1	2.3
	0	3.8	1.6	0.9	
	0	1.4	0.6	0.1	
급진폭력혁명은 안됨	12	161	115	15	303
3	3.9	53.1	37.9	4.9	48.9
	5.2	68.2	45.0	14.4	
	1.9	26.0	18.6	2.4	
혁명적 방법 가능	7	56	116	49	228
4	3.1	24.6	50.8	21.5	36.8
	30.4	23.7	45.3	47.1	
	1.1	9.0	18.7	7.9	
혁명필요	2	6	20	39	67
5	2.9	8.9	29.8	58.2	10.8
	8.7	25.4	7.8	37.5	
	0.3	0.9	3.2	6.3	
COLUMN TOTAL	23	236	256	104	619
	3.7	38.1	41.4	16.8	100.0

CHI-SQUARE : 168.02177 D.F. : 12 SIGNIFICANCE : 0.0000

비율이 높으며(절대 불참하겠다는 입장표명 : 36.4%, 참여하고 싶지않다 49.5%), 학생시위에 기회가 주어지면 참여하겠다고 하는 학생일수록 운동권 학생들이 좌경화 되었다고 하는 의견에 반대를 하고 있다.(기꺼이 참여하겠다 입장표명 : 54.7%, 어느정도 참여 : 48.5%) (표 23) 다음 학생시위 참여도와 학생운동이념의 타당성에 대한 관계를 교차검증 해 본 결과 학생시위에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학생일수록 학생운동이념이 타당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으며(기꺼이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학생운동이념을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비율 : 64.2%), 학생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학생일수록 학생운동이념이 타당치 못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다.(절대불참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학생운동이념을 약간 타당치 못하다고 보는 비율 : 42.9%)(표 24) 다음 미국의 정치, 경제적 간섭에 대해서도 아주 심하다가 56.1%나 되고, 약간 심하다가 35.3%로써 약90%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미국의 정치·경제적 간섭에 대해 민감하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다음 노사분규의 원인에 대해서도 비인간적 처우와 낮은 임금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9.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노동자·사용자간의 대화부족과 상호불신(30.7%), 정치적 모순(9.2%)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정치·경제적 모순으로 인한 분배구조의 왜곡과 노동자·사용자간의 상호불신으로 인해 노사분규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5.7%)나 외부세

<표 23> 학생시위 참여도와 학생운동권 좌경화 인식과의 관계

COUNT ROW PCT COL PCT TOT PCT	전적으로 타당	어느정도 타당	약간 타당못함	매우 타당못함		ROW TOTAL
기꺼이 참여 1	70 64.2 75.3 11.3	34 31.2 9.3 5.4	4 3.7 3.0 0.6	1 0.9 4.3 0.2		109 17.6
어느정도 참여 2	13 4.9 14.0 2.1	225 84.0 61.3 36.3	26 9.7 19.6 4.2	4 1.5 17.4 0.6		268 43.3
참여하고 싶지않다 3	8 3.6 8.6 1.3	102 46.4 27.8 16.5	96 43.6 71.1 15.5	13 5.9 56.5 2.1	1 0.5 100.0 0.2	220 35.5
절대 불참 4	2 10.0 1.1 0.3	5 23.8 1.2 0.8	9 42.9 6.6 1.5	5 23.8 21.7 0.8		21 3.4
5		1 100.0 0.3 0.2				1 0.2
COLUMN TOTAL	93 15.0	367 59.3	135 21.8	23 3.7	1 0.2	619 100.0

CHI-SQUARE : 386.94686 D.F. : 16 SIGNIFICANCE : 0.0000

<표 24> 학생시위 참여도와 학생운동이념 타당도와의 관계

COUNT ROW PCT COL PCT TOT PCT	선적으로 타당	어느정도 타당	약간 타당못함	매우 타당하지 못함		ROW TOTAL
기꺼이 참여 1	70 64.2 75.3 11.3	34 31.2 9.3 5.4	4 3.7 3.0 0.6	1 0.9 4.3 0.2		109 17.6
어느정도 참여 2	13 4.9 14.0 2.1	225 84.0 61.3 36.3	26 9.7 19.6 4.2	4 1.5 17.4 0.6		268 43.3
참여하고 신지않다 3	8 3.6 8.6 1.3	102 46.4 27.8 16.5	96 43.6 71.1 15.5	13 5.9 56.5 2.1	1 0.5 100.0 0.2	220 35.5
절대 불참 4	2 10.0 1.1 0.3	5 23.8 1.2 0.8	9 42.9 6.6 1.5	5 23.8 21.7 0.8		21 3.4
5		1 100.0 0.3 0.2				1 0.2
COLUMN TOTAL	93 15.0	367 59.3	135 21.8	23 3.7	1 0.2	619 100.0

CHI-SQUARE : 386.94686 D.F. : 16 SIGNIFICANCE : 0.0000

력의 선동타(4.0%)으로 인한 노동자측의 원인 행위에 대해선 비교적 관대함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노학연계투쟁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 어느정도 문제있으나 바람직함이 3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긍정적 면이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음(31.6%), 학생이 전위가 되고 노동자가 주가 되는 아주 바람직함(16.7%), 바람직하지 못함(11.9%)순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노학연계투쟁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면으로 양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약간 긍정적 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학생들이 노학연계투쟁을 조심스럽게 관망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전향적 사고로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운동의 주쟁점을 보면 반독재 민주주의타파가 40.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부정부패 항거(16.7%), 반외세민족자립(13.8%), 총계급을 위한 사회건설(11.0%) 순으로 되어 있어 정치·경제적 보수해소, 반외세 민족자립의 기치를 높이 들려고 하는 학생들의 가치적 경향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 학생운동이 과격화되는 이유는 학생운동에 대한 정부탄압강화가 33.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사회모순구조의 악화(33.1%), 학생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20.54%), 운동권학생들의 오판및 영웅심리(11.8%)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학생운동의 과격화의 원인을 정부나 사회모순구조의 악화로 들고 있다. 일부 운동권 학생의 좌경화 의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40.7%),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16.5%)는 부정

적 견해가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볼 때 운동권 학생들을 좌경화하려는 일부 세력의 평가에 다소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시위의 범위와 방법의 전망에 대해 다소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이 39.7%로써 제일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이 현상태 지속(30.7%), 온건방향축소(13.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볼 때 앞으로의 학생운동은 어느정도 확대되는 양태를 띄우긴 하겠으나 현상태와 같은 소강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7할정도 되는 학생들이 관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교생의 학생운동관을 보면 우선 현재의 한국은 권위적인 체제인가에 대해 어느정도 그렇다(60.3%), 확실히 그렇다(25.6%)는 것으로 보아 대학생과 같은 시각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형식적 민주주의(34.7%), 경제적구조모순(21.1%), 군부정권의 집권(16.6%) 등으로 대학생과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전교조」 같은 민주화 요구에 대해 어느정도 타당하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46.7%)고 보는 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적극적이거나 어느정도 지지한다는 의견이 38.2%가 되는 것으로 보아 전교조 활동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그 방법이 비민주적이거나 비합리적이어서 안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선생님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느정도 원만하다가 63.3%, 아주 원만하다가 5.5%로 나타나 약 70% 가까운 학생이 사제시간의 인간관계가 원활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과 비슷한 양태를 보이며 다음 운동이나 혁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급진폭력방법은 거부한다는 것에 응답한 학생비율은 63.3%가 되며, 혁명적 방법도 가능하다가 28.1%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학생들이 혁명의 필요성은 어느정도 인정하나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한 혁명에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대학생과 비슷한 생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학생운동이념에 대한 타당성 인지도에 있어서 어느정도 타당하다가 53.8%이고, 어느정도 타당하지 않다가 32.7%로 대학생보다 약간 비율적으로 낮긴 하나 학생들이 학생운동이념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감하는 면이 있음을 일깨워 준다. 다음 고등학생이 시위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학생이 11.6%, 어느정도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학생이 56.8%로써 약 70%정도 되는 학생이 고등학생의 시위참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음 미국의 정치·경제적 간섭에 대해서도 아주 심하다가 47.7%, 약간 심하다가 46.7%로 나타나 약 95%정도가 미국의 정치·경제적 간섭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대학생과 유사한 양태이다. 다음 노사분규의 원인에 대해서도 노동자·사용자간의 대화부족과 상호불신(44.2%)을 가장 높은 비율로 내세우고 있고, 비인간적 처우와 낮은임금을 40.2%로 응답해 대학생과 유사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다음 노학연계투쟁은 바람직하지 못함(44.2%)과 극히 바람직하지 못함(18.6%)으로 약 60%정도의 학생이 노학연계투쟁을 정당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대학생의 경우와는 약간 다른 양상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학생운동의 주쟁점을 보면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항거(45.7%)를 가장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반독재민주주의(17.1%)를 지지하고 있어 이 점도 대학생과 약간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학생운동이 과격화되는 이유는 학생들 주장이 안 받아들여져서가 33.2%로 가장 높으나 대학생들은 정부탄압을 높게 보았으나 고교생은 19.6%로 보고 오히려 운동권의 영웅주의를 보다 높게 보고 있다. (25.6%) 그리고 일부 운동권 학생의 좌경화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가 60.8%, 전적으로 동의가 9%로 나타나 대학생보다 더 동의하는 입장이며 학생시위의 범위와 방법의 전망에 대해서도 다소 확대(39.7%), 과격확대(16.6%)의 부정적 시각과 현상태지속

(19.6%), 온건및 축소(20.6%)의 긍정적 시각으로 양분되나 확대쪽의 의견으로 쏠리는 감이 있다.

6) 대학발전위한 제언과 학생운동문제 해결방안과 전망

다음은 개방형 질문의 형태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토록한 두가지 질문, 즉 대학발전을 위한 제언과 학생운동의 전망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분석을 하기로 한다. 먼저 대학발전을 위한 제언을 보면 대학의 자치권을 인정해 대학의 자율과 교육의 자주권을 보장하고 많은 재정적 지원과 대학에 대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져 대학의 복지, 시설등이 확충되고 대학의 자율성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역적 차이없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학생으로의 본분과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란 내용과 대학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진정한 학문의 발전을 위한 전담이 되어야 한다는것, 그리고 학원민주화에 병행해 학생들도 학교행정에 참여자가 되며, 교수와 학생간의 신뢰가 회복되어 권위주의가 청산되고 인간적 관계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점등을 세기하고 있다.(표 25참고)

다음 학생운동의 전망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제언을 보면 대화를 통해 현시국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부정부패 등으로 표현되는 사회구조의 제 모순을 타파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폭력성과 극단주의적 모험주의는 배제되어야 하고 전체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된다고 하면서 학생들의 요구를 무조건 정부가 억압하려고만 들지말고 점증적으로 수용하여 공동현안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 군부독재타도와 반외세 민족자립을 위해 학생운동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의 표명도 있고 학생대중의 자각과 주체적 참여에 대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도 강조하고 있다.(표 26참고)

<표 25> 대학발전을 위한 제언

내 용	지 역							
	서울·경기	충 청	강 원	전 라	경 상	제 주	기타(부산)	계
학생으로서의 본분, 책임을 다해야 함	9 (25.7) (9.1)	7 (20) (13.7)	1 (2.9) (5)	1 (2.9) (5)	13 (37.1) (13.5)	0	4 (11.4) (12.5)	35
정치권의 자성을 통한 안정유도	1 (50) (1.0)	1 (50) (2.0)						2
학원 자주화, 민중해방, 진정한 학문추구	4 (50) (4.0)	1 (12.5) (2.0)	3 (37.5) (15)					8
취업양성소 안됨, 대학본연의 자세로(대학의 학문적 발전)	6 (20) (6.1)	6 (20) (11.8)	7 (23.3) (35)	2 (6.7) (10)	6 (20) (6.3)	0	3 (10) (9.4)	30
진보적 사상의 요람으로 확대, 강화	1 (50) (1.0)	0	1 (50) (5)					2

대학의 자치권 인정, 정부나 소유주의 규제배제(대학자율, 교육자주보장)	21 (26.3) (21.2)	10 (12.5) (19.6)	1 (1.3) (5)	8 (10) (40)	26 (32.5) (27.1)	1 (1.3) (100)	13 (16.3) (40.6)	80
학생들의 권익우선, 학문탐구의 장	6 (31.6) (6.1)	5 (26.3) (9.8)	3 (15.8) (15)	0	5 (26.3) (5.2)	0	0	19
학생들의 학교행정참여(학원 민주화)	14 (50) (14.1)	5 (17.9) (9.8)	1 (3.6) (5)	1 (3.6) (5)	6 (21.4) (6.3)	0	1 (3.6) (3.1)	28
교과과정의 다양한 개방화, 보다 현실적 참여교육(원하는 과목 수강 가능)	3 (60) (3.0)	0	0	0	2 (40) (2.1)	0	0	5
많은 재정적 지원과 시설투자(복지, 시설확충등)	15 (31.9) (15.2)	8 (17.0) (15.7)	1 (2.1) (5)	3 (6.4) (15)	18 (38.3) (18.8)	0	2 (4.3) (6.3)	47
학생, 교수, 교직원의 참여	6 (46.2) (6.1)	3 (23.1) (5.9)	1 (7.7) (5)	0	1 (7.7) (1.0)	0	2 (15.4) (6.3)	13
교수와 학생간의 신뢰회복(권위주의 청산, 인간적 관계 발전)	8 (25) (8.1)	3 (9.4) (5.9)	1 (3.1) (5)	1 (3.1) (5)	15 (46.9) (15.6)	0	4 (12.5) (12.5)	32
교수의 질적향상	1 (11.1) (1.0)	0	0	1 (11.1) (5)	4 (44.4) (4.2)	0	3 (33.3) (9.4)	9
시험제도 개선	1 (100) (1.0)							1
재단미리 방지, 재단 기업화 방지	3 (60) (3.0)	2 (40) (3.9)						5
지방대학 활성화				3 (100) (15)				3
계	99	51	20	20	96	1	32	319

〈표 26〉 학생운동의 전망과 문제해결방안

내 용 \ 지 역	서울·경기	충 청	강 원	전 라	경 상	제 주	기타(부산)	계
학생들의 요구를 정부가 적극 수용(정부의 무조건적 억압자제)	16 (19.5) (18.8)	13 (15.9) (20.6)	10 (12.2) (30.3)	6 (7.3) (26.1)	29 (35.4) (30.2)	0	8 (9.8) (25)	82
대회를 통해 현시국, 사회구조모순 타파(부정부패 수정, 정부 적극적 노력)	22 (23.9) (25.9)	20 (21.7) (31.7)	7 (7.6) (21.2)	6 (6.5) (26.1)	30 (32.6) (31.3)	0	7 (7.6) (21.9)	92

군부 독재타도와 반외세 민족자립위해 학생운동이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함 (반제반파쇼 투쟁)	18 (31.0) (21.2)	8 (13.8) (12.7)	6 (10.3) (18.2)	9 (15.5) (39.1)	7 (12.1) (7.3)	1 (1.7) (100)	9 (15.5) (28.1)	58
운동권 내부노선 통일, 학생대중의 자각과 주체적 참여	12 (60) (14.1)	1 (5) (1.6)	2 (10) (6.1)	0	2 (10) (2.1)	0	3 (15) (9.4)	20
국민의 호응을 얻어 확대해 나가야 함	3 (21.4) (3.5)	4 (28.6) (6.3)	1 (7.1) (3.0)	2 (14.3) (8.7)	3 (21.4) (3.1)	0	1 (7.1) (3.1)	14
폭력성과 극단주의의 배제, 전체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7 (11.7) (8.2)	17 (28.3) (26.9)	7 (11.7) (21.2)	0	25 (41.7) (26.0)	0	4 (6.7) (12.5)	60
국내정치 개입보다 학내문제, 대외적 학생운동으로 나가야	2 (100) (2.4)	0						2
계층간의 갈등 속에서 바람직하고 온건한 방향으로 진행	3 (100) (3.5)	0						3
민중해방때까지 투쟁	1 (100) (1.2)	0						1
사회적 부조리 해소, 상층부쇄신	1 (100) (1.2)	0						1
계	85	63	33	23	96	1	32	333

VI. 종합평가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해 한국에 있어서의 학생운동의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비교분석적 시각에서 구미의 학생운동의 양태와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학생운동의 흐름을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기위해 실증적 접근으로 내용별 계량분석 방법과 현지조사를 통한 질문지조사방법을 사용하여 학생운동의 흐름의 맥을 잡아 보려고 시도하였다. 여기에선 이러한 연구분석과정에서 도출된 학생운동의 흐름의 맥을 잡아 보려고 시도하였다. 여기에선 이러한 연구분석과정에서 도출된 학생운동의 흐름과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특성 및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이에대한 정책적 지방전으로 문제해결의 방안을 모색해 보려한다.

우선 한국학생운동의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제기된 몇가지의 특징을 평가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 일제시대부터 학생운동의 효시로 기산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학생운동은 해방이후부터라고 사료된다.

둘째, 해방직후의 좌우학생운동은 과도기의 이념적 혼란에서 빚어진 좌우이념대립이 가져

온 산물이라 할 수 있겠고 50년대는 관제동원의 결과로써 학생들에게 소외의식을 느끼게 한 시기로 평가된다.

셋째, 1960년대는 민주주의, 헌법, 그리고 자유, 평등, 진리, 정의 등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었고 70년대에는 민족주의, 자유, 투쟁, 혁명이며 80년대는 경제, 재판, 노동, 투쟁, 혁명 등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60년대가 다소 당위적이고 이상적인 입장에서 민주주의나 자유를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표현하는 헌법에 관한 문제에 집착한 반면 70년대부터는 물론 민주주의나 자유를 이상으로 하되, 투쟁이나 혁명을 수단으로 한 현실참여라는 점을 학생운동이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하며 80년대에 와서 이론이 보다 구체화되어 직접 현실참여의 목적과 연관된 재판, 통일 및 노동문제에 관해 쟁점화하여 들고 나오고 있고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쟁취키 위한 수단도 이상적이거나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투쟁이나 혁명을 수단으로 하는 좌파적 성향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생운동자체가 80년대에 들어서서는 지금까지 즉흥적, 감상적 국면에서 벗어나 보다 이념적이고 이론적으로 무장된 좌파성향 학생운동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네째, 60년대와 70년대는 주로 민주주의, 자유, 독재, 부정부패, 선거등이 주요쟁점으로 제기되나 80년대에 와서는 민주주의, 재판자본, 노동문제, 통일, 투쟁, 민족자결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모색으로 나오고 있고 여러가지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문제제기가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학생운동의 방향이 어느 한 특정한 이상적 쟁점의 범주에서 탈피하여 현실적용적인 쟁점으로 다원화하고 있음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현 사회제도나 이념의 다원화경향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학생운동의 흐름도 어느 주가되는 쟁점과 더불어 다원적인 쟁점이 부가되어 다원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일반화는 구미 학생운동의 흐름과 비교해 볼 때 명백히 드러난 바 있다.

다섯째, 1960, 70년대가 다분히 자유나 평등, 진리, 정의 등을 구가하며 독재정권의 타도를 통한 궁극적인 민주사회건설이라는 다분히 낭만적인 학생운동의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80년대는 이러한 낭만성에서 벗어나 외세축출과 자본주의체제의 제모순에 관한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외세종속에서의 탈피, 미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 민족성회복, 남북의 조건없는 평화적 통일, 경제의 종속성 탈피, 균등한 부의 분배, 경제적 착취계급인 재판자본가의 응징, 군부독재정권의 타도 등이다. 여기에서 특기할 점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적으로 통일문제와 경제, 재판에 대한 쟁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독재파쇼타도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공히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쟁점인 반면 통일, 민족, 경제, 재판은 특히 80년대 들면서 강하게 제시되고 있는 쟁점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80년대의 학생운동이 물론 독재파쇼정권의 타도에 주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에 한정하지 않고 외세축출과 자본주의체제 전복에도 주요관심을 경주하고 있다는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섯째, 60년대, 70년대에는 학생운동의 이념적 이론무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림과 학림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을 추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의 시각과 방법론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어 이것을 균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열띤 이념논쟁이 뒤따르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생운동의 방향성이라 할 수 있는 학생운동이념이 창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적 흐름은 「무림-학림」, 「야비-전망」, 「깃발-반깃발」, 「C-N-P 논쟁」들을 거쳐 80년대 중반의 삼민투 그리고 민민투, 자민투 간의 이론투쟁은 좌파

적 사회주의 운동의 이론적 기초형성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구미의 학생운동의 흐름을 살펴볼때, 대개 학생운동의 진앙지는 학내문제가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가 지니고 있는 경직성, 관료성, 그리고 재정적 문제 등이 항상 빌미가 되어 이것이 사회문제로 증폭되어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음을 문헌분석을 통해 이해하여왔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지도하고 대응해야 할 대학당국이나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분석된 바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움직임을 사소한 학교문제만으로 국소화시키려 했다는 점이다. 학교는 더이상 학교만으로 남아 있을 수 없으며 사회조직의 한 구성체임을 인식하여야 했었다. 사회적 제모순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대학당국은 학원내의 문제로 축소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으로서 학생들의 저항의식을 더욱 부채질하였으며 급기야는 체제전복의 위협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던 것이다. 바로 외국의 사례가 한국에도 어느정도 그대로 적용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 대학내의 문제가 더이상 대학자체만의 문제일 수는 없다는 비교적이고 균형화된 시각이 필요로 할 것이다.

여덟째, 내용별 계량분석을 통해 유인물을 분석한 결과 문헌분석에서 제기한 학생운동의 흐름의 맥이 많은 부분에 걸쳐 일치하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론적 접근을 통한 문헌분석에서 발견된 사실들이 실증적 검증과정을 거쳐 사실로써 확인되어졌음을 의미하며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제시된 한국에 있어서의 학생운동의 흐름속에서 제기된 제특성은 나름대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아홉째, 현지조사를 통한 질문지방법도 현재의 학생들의 상당수가 소위 운동권학생들의 학생운동쟁점에 동감을 표하며 나아가 선 이들과 유사한 시각으로 사회나 국가, 그리고 학교를 쳐다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운동권의 이념적 색채에 채색되어지고 있으며 그들과의 심리적 공감대도 서서히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 원인이 바로 체제나 사회제도 그리고 학원내의 문제나 모순이 이를 더욱 부채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 체제관, 대미관, 국가관등을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유민주주의제도를 상대적으로 우월한 이념체제로 보는 입장(47.7%)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자유민주주의제도와 공산사회주의제도를 혼합절충한 수정적 이념제도를 선호하는 입장(37.6%)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진보적이념관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적극성에 있어서도 남북한 모두 적극적이질 못하고 소극적이라는 입장(65.8%)이 지배적인 입장이어서 통일에 대한 그들의 강한 열의를 남북당국이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정치, 경제적 간섭이 심하다고 보는 입장(아주심함: 56.2%, 약간심함: 35.4%)이 91.6%나 되어 미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을 권위적인 체제로 보는가에 대해 그렇다고 보는 입장(확실히 그렇다: 52.3%, 어느정도 그렇다: 37.5%)이 89.8%나 되어 현재체제를 아직도 비민주적인 시각에서 보려고 하는 입장이 뚜렷하며 권위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민중의 참여가 배제된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기인된다는 입장이 35.9%이고 군부정권의 집권타이라는 입장이 29.8%나 되어 현재 일고 있는 학생운동의 이슈나 민주화의 제반요인과 일치하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군의 정치개입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전적으

로 배제 : 52.1%, 극소화해야 : 34.5%)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구체적인 학생운동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학생시위에 어느정도 동참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60.8%)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기꺼이 참여 : 17.7%, 어느정도 참여 : 43.2%), 학생운동에서 주장하는 이념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74.3%)을 가지고 있으며(전적으로 타당 : 14.9%, 어느정도 타당 : 59.4%), 오늘의 대학이 일부 운동권 학생들에 의해 좌경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회일각의 견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생이 과반수(57.0%)를 넘고 있는 점(동의할 수 없음 : 41.2%, 전적으로 동의못함 : 16.7%)등으로 미루어 볼때 일반 대학생들도 학생운동에 대해서 어느정도 긍정적인 입장에서 그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노학연계투쟁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이(55.6%)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학생운동의 주잇슈를 반독재 민주주의(41.0%)와 반외세 민족자립(14.0%)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진 점등으로 볼 때 현재 운동권에서 내세우는 주의·주장이 상당히 일반 대중 학생들에게도 전파, 확산되어졌음을 일깨 하는 것이다.

VII. 전망 및 정책제언

이상으로 한국학생운동의 흐름상에서 도출된 특징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 다음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향후 학생운동의 방향이 어떠한 식으로 전개되어 나아갈지에 대한 전망을 해보기로 한다.

첫째, 90년대에도 학생운동의 이념적 논쟁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그리고 투쟁은 더욱 강성을 띄게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구미의 사례분석에서도 확인된 바이지만 한국의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면 학생운동의 주쟁점에 대한 분열현상이 야기되고 그 반사적 결과로써 학생운동에 대한 대중적 매력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소수 극렬 학생들만이 남아 치유되지 못한 제반 사회적 모순을 끈질기게 쟁점화할 것이며 그들이 선택하는 모순해결방안은 극렬하고 과격한 방법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80년대의 학생운동의 양태에서 나타나는 적군파의 테러 등이 바로 입증적 사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고려할 수 있는 문제는 80년대 중반부터 극렬히 일기 시작한 노동운동의 문제이다. 이것도 학생운동과 어우러져 90년대의 문제로 제기되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학생운동의 이념투쟁노선, 전략·전술들이 보다 노골적이고 표면화될 것이다. 민주화 추세에 따른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판단된다.

셋째, 학생운동의 쟁점으로는 군부독재타도, 파쇼타도, 외세배척, 민족자주통일, 매관자본가 타도, 계급타파 등으로 집약될 것이나 이 이외의 여러가지 쟁점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것이다.

넷째, 주된 쟁점은 독재파쇼정권의 타도라는 입장에서 어느정도 선회하여 민족통일, 외세배척, 매관자본가 타도등으로 귀착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6공화국이 5공화국 문제를 잘 처리하고 6공화국이후의 정권이 민간정부로 출범할 수 있다면 독재파쇼타도의 문제는 그만치

상대적 비중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학생운동의 흐름이 80년대 초, 중반엔 과격하고 급진적인 강성을 띤 내용으로 점철되었으나 8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쟁점자체가 다원화되고 학내문제를 포함한 보다 이론을 의식한 학생운동으로 방향을 정립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전체 운동에 대한 부분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은 선위세력으로서의 기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노동자들도 상당한 의식수준으로 올라섰을 뿐 아니라 노사구조를 반드시 대결을 전제로 한 계급구조가 아닌 기능적 분화에 따른 협력체제로 이해하고 있고 여론도 학생운동의 과격성을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의 학생운동은 어느정도 현상을 유지하면서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일정한 시점을 지나 실질적 민주화가 정치권에서 이루어져 경제적 부의 분배구조가 여러가지 사회입법을 통해 시정되어진다면 극렬 소수 과격파에 의한 좌파성향 학생운동은 불식하기 어렵겠으나 대중조직적인 성격으로서의 학생운동은 어느정도 현재와 같은 열기에서 서서히 퇴조하리라 사료되는 것이다.

이성으로 한국학생운동에 관해 전망을 해보았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한국학생운동의 특성과 전망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제기해 보기로 한다.

첫째,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학생운동의 주된 쟁점중 상당한 부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정부당국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은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5공정산에 대한 슬기로운 결단이 정치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토지공개념 등의 자본주의 제모순 해결에 대한 후속적 치유조치들이 긍정적 방향으로 이루어 지도 록 하는 큰 정치의 실행이 기대되어 지는 것이다. 그리고 제1공화국에서 부터 지속되어온 권위주의적 정치의 불식이나 군부의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 배제등도 긍정적 입장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현안문제의 해결은 보다 근원적인 학생운동의 근거를 파헤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긴요하면서도 급선무적인 일이라 사료된다.

둘째, 경제적인 분배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작금에 있어서의 국민 대다수의 생각은 경제발전보다는 경제안정을 더 원하고 있고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성숙을 더 원하고 있다. 소득재분배구조가 왜곡되고 독점자본주의가 팽배하고 정경유착에 의한 경제구조의 왜곡과 실물경제의 위축, 세속화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잠식하는 커다란 해악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중산층의 비중을 보다 강화시키고 하위 계층에 대해선 과감한 복지정책으로 최저빈곤선위로 이끌여 올려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강고한 사회보장제를 실시해 주어야 하며 상류층은 스스로 자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해 보다 더 큰 공공재의 창출에 국가와 더불어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있는 자의 기득권을 송두리채 빼앗기지 않고 혁명을 막는 첩경이라 판단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 견지되면 현재 분세되고 있는 노동문제도 상당히 격감되리라 사료된다.

셋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이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의 가치관정립을 위한 이념이나 생활신조가 창출되어야 하고 이것이 생활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나 기업이 숭선수범을 하여야 한다. 건전한 정신문화와 가치관정립 그리고 올바른 정치적 소신과 역사적 신념을 가진 시민성을 정립하고 또한 형성키 위한 진지한 학구적 노력이 사회각계에서 일어나

야 하며 특히 학자들의 헌신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전의 교조적인 반공 이데올로기에만 안주하지 말고 국민들의 가치관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념개발에도 이러한 제반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이념의 대민홍보전략도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국민들이 보다 올바른 방향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북방문제나 남북문제를 선결조건으로 하는 통일방안이 국민의 합의위에서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유관관계기관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의 문제를 대학자체의 문제만으로 축소시켜 생각하고 대응하는 발상에 대한 전환이 필요로 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데 대학의 본부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수, 그리고 정부, 기업, 유관관계기관의 관심과 성원등 엄청난 노력이 경주되어야 될 것이다. 특히 등록금과 관련된 문제, 취업문제, 병역문제, 학내 교육시설문제 등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지역성이나 사회성 등도 보다 포괄적으로 재검토되어 개선되어야 한다.

여섯째, 문제화된 운동권학생들을 극단적으로 고립시키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이들의 운동 동기들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욕구를 사전에 해소시켜주는 방안을 개발하여 이들의 의식화를 예방함으로써 이들의 운동역량을 약화시키고, 지나친 대응전략을 지양하고 보다 예방적 차원 그리고 시의적절한 적실성높은 대응전략을 사용하여 대중요법적, 일회적 대응전략에서 야기되는 역기능을 최소화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일부 불순한 세력이나 재야세력은 전략전술이나 이해타산으로 순수한 동기의 학생 운동을 왜곡화시키서는 안되며 정부는 과감성과 소신을 가지고 이러한 학생운동의 왜곡화를 극소화하는데 전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학생운동을 회고해 볼때, 학생운동의 성과나 가치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웬지 산뜻하지 않고 묵직한 여운이 남는 것은 순수해야 할 학생운동에 급진적 사회주의이념이 접목되어 불순한 세력에 의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따라서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도의향상을 통한 사회통제역량이 증진되어야 하고 또한 학생들 자신도 보다 올바른 행동이념과 역사적 신념을 가지고 국가발전을 위한 진정한 사회정화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으로 개화될 수 있도록 정신적 무장과 이념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제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Bibliography)

- 강신철외, 「80년대 학생운동사」, 서울:형성사, 1988.
 김동일, 「미국학생운동, 참여에서 저항으로」, 서울:광장 8호, 1989.
 김성희, 「근대서양정치사」, 서울:박영사, 1958.
 김승호, 「대학에서의 주사파」, 서울:자유공론, 10월, 1989.
 _____, 「한국학생운동사」, 서울:현대비교연구소, 1988.
 김영학, 「국내 좌경운동과 주사파」, 서울:북한 8호, 1989.
 _____, 「마르크스 레닌주의 백서」, 서울:명성출판사, 1985.

- 김진(역), 「일본 학생운동사」, 서울 : 백산, 1986.
- 김효은, 「민중주의의 성격규명을 위한 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6.
- 랄프 다렌도르프(저), 이종수(역), 「분단독일의 정치사회학」, 서울 : 한길사, 1986.
- 문영호, 「반제반파쇼운동론」, 서울 : 온누리, 1989.
- 북한연구소, 「반미청년회란 무엇인가」, 서울 : 1988.
- _____, 「전대협 의 실체와 활동목표」, 서울 : 1988.
- 사회와 사상, 「80년대 사회운동논쟁」, 서울 : 한길사, 1989.
- 세계편집부, 「공안사건기록」, 서울 : 세계출판사, 1986.
-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서울 : 한길사, 1980.
- 안청시, 최일섭, 「전후세대의 가치관과 이념」, 서울 : 집문당, 1987.
- 양병욱(역), 로버트·L·울프동(저), 「세계문화사下」, 서울 : 을유문화사, 1963.
- 염영철, 「급진좌경학생운동의 이론과 투쟁양상II - 체제변혁논리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 이념문제연구소, 1989.
- 오문균, 「좌경의식화과정과 커리큘럼분석」, 서울 : 현대비교연구소, 1988.
- 이관우, 「신조사방법론」, 서울 : 형설출판사, 1979.
- 이은호, 이신일 공역, 「현대정치사상 : 이데올로기의 틀에서」, 서울 : 박영사, 1989.
- 이재오,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 서울 : 형성사, 1984.
- 이중환(편), 「청년문화론」, 서울 : 현암사, 1974.
- 이철승, 「학생운동과 반공」, 서울 : 북한 1호, 1972.
- 일송정편집부, 「학생운동논쟁사」, 서울 : 일송정, 1988.
- _____, 「팜플렛 조직노선」, 서울 : 일송정, 1988.
- 정대동(역), 모토하시(저), 「전학련연구」, 서울 : 온누리, 1987.
- 최평길, 「대학생·고교생·고교교사의 정치사회의식 정책연구」, 서울 : 연세대학교, 1987.
- _____, 「공산권연구방법론 : 북한을 중심으로 - 내용별 계량분석」, 「정경연구」, 152, 153호, 1977.
- _____, 「대학생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위한 정책연구 - 젊은세대의 공산권 비판 교육모형개발」, 서울 : 연세대학교, 1984.
- 치안본부, 「인민노련사건의 전말」, 서울 : 치안본부, 1989. 11.
- 통일원, 「북한의 주체사상비판연구」, 서울 : 국토통일원, 1987.
- 한국 반탁·반공학생운동기념사업회, 「한국학생전국운동사」, 서울 : 한국 반탁·반공 학생운동 기념사업회, 1983.
-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한국학생운동의 연구」, 서울 :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1987.
- 홍순호, 「각국급진좌경 학생운동」, 서울 : 현대 비교연구소, 1988.
- Anderson, Walt(ed.), *The Age of Protest*, Pacific Palisades, CA.: Goodyear Publishing Co., Inc., 1969.
- Appelbaum, Richard P., *Theories of Social Change*, Chicago, Ill: Markham Publishing Co., 1970.
- Aron, Raymone, *The Elusive Revolution*, London: Pall Mall, 1969.

- Bendit, Daniel Cohn, *Obsolete Communism : The Left-Wing Alternative*, London : Andre Deutsch, 1968.
- Berelson B., "Content Analysis" in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I, ed., 1967.
- Birnbaum, Norman and Other, "The American Student Movement," J. Nagel(ed), *Student Power*, London : Merlin Press, 1969.
- Carten, A., *The Political Theory of Anarchism*, N.Y. : Harper and Row, 1971:
- Castle, Francis G., *Pressure Groups and Political Culture*, N.Y. : Routledge and Kegan Paul, 1967.
- Caute, David, *The Great Fear : The Anti-Communist Purge under Truman and Eisenhower*, N.Y. : Simon and Schster, 1978.
- Coleman, James S., et als., *Youth : Transition to Adulthood*, Chicago, Ill.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 Cowely, W.H., *Unpublished*, "Notes on Universities." Ch. II. "Student Participation," 1970.
- Dahrendorf, Ralf,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9.
- Erikson, Erik H., *Identity : Youth and Crisis*, N.Y. : W.W. Norton & Co., 1968.
- _____,(ed), *The Challenge of Youth*, N.Y. : Anchor, 1965.
- Free, Lloyd A. and Hadley Cantril, *The political Beliefs of Americans : A Study of Public Opinion*, N.Y. : A Clarion Book, 1968.
- Goldschmidt, Dietrich, "Psychological Stress : A German Case Study", in J. Nagel(ed), *Student Power*, London : Merlin Press, 1969.
- Graham, Hugh Davis and Ted Robert Gurr, *Violence in America :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N.Y. Bantam Books, 1969.
- Gress, George, "France, May 1968", in J. Nagel(ed), *Student Power*, London : Merlin Press, 1969.
- Hall, Granville Stanley, *Adolescence : Its Psychology*, N.Y. : P. Appletoy, 1904.
- Han, Sung Joo, *The Failure of Democracy in South Korea*, CA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 Handlin, Oscar, *The Uprooted*, Boston, Mass. : Little Brown, 1951.
- Hobsbaum, E.J., *Primitive Rebels*, N.Y. : W.W. Norton & Co., Inc., 1959.
- Hofstadter, Richard, *The Age of Reform*, N.Y. : Vintage Books, 1955.
- Holsti, Ole R., "Evaluative Assertion Analysis", in Robert C. North and Others(ed), *Content Analysis f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Crisis*, Evanston, Ill. : North Western University Press, 1963.
- Jacobs, Paul and Saul Landau, *The New Radicals*, N.Y. : Vintage, 1966.
- Katsiaficas, George, *The Imagination of the New Left*, Boston, Mass. : South End Press, 1987.
- Kerlinger, F.,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N.Y.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6.

- Lamb, Robert et al., *Political Alienation*, N.Y. : St. Martin, 1975.
- Lipset, Seymour Martin, *Rebellion in the University*, Chicago Ill.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 Lipset, S. M. and Raab Earl, *The Politics of Unreasons : Right Wing Extremism in America*, New York : Harper and Row, 1970, second e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 Macridis, Roy C., *Contemporary Political Ideologies*, N.Y. : Winthrop, 1980.
- Marcuse, Herbert, *One Dimensional Man*, Boston, Mass : Beacon Press, 1968.
- Nagel, Julian, (ed), *Student Power*, London : Merlin Press Ltd., 1969.
- Newman, Joseph, "Education and Politics in Britain," J. Nagel(ed), *Student Power*, London : Merlin Press, 1969.
- North, R. C., et als., *Content Analysis*, Evanston, Ill. : North Western University Press, 1963.
- Osgood, Charles E., "The Representational Model and Relevant Research Method", in Ithelde Sola Pool(ed.), *Trends in Content Analysis*, Urbana, Ill. : Th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59.
- Powell, G. Bingham, Jr., *Contemporary Democracies : Participation, Stability and Violence*,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 Reisman, David, *The Lonely Crowd*, New Haven, Conn. : Yale University Press, 1950.
- Roszak, Theodore, *The Making of a Counterculture*, N.Y. : Double day, 1968.
- Said, Abdul A., (ed), *Protagonists of Change*,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Inc., 1971.
- Sanders, Luther, W., "A Content Analysis of President Kennedy's First Six Press Conference", *Journalism Quarterly*, Vol, 42, No.1.(Winter, 1965)
- Selltiz, C., et als., *Research Methods in Social Relations*, N.Y.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6.
- Simon, J.L., *Basic Research Methods in Social Science*, N.Y. : Random House, 1969.
- Sowell, Thomas, *A Conflict of Visions*, N.Y. : Quill William Morrow, 1987.
- Teoderi M., *The New Left : A Documentary History*, N.Y. : Bobbs-Merrill, 1969.
- Touraine, Alain, *The May Movement*, N.Y. : Random House, 1971.
- Tucker, Robert C., *The Marx-Engels Reader*, N.Y. : Norton, 1978.
- Webb E. J. et als., *Unobtrusive Measures : Nonreactive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 Chicago : Rand McNally and Company, 1966.
- Weller, Era and Wilfred Van Der Will, "Protest in West Germany," in J. Nagel(ed), *Student Power*, London : Merlin Press, Ltd., 1969.
- Zigenhagen E. A., et als., *Techniques for Political Analysis : A Laboratory Manual* Boston : Holbrook Press, 1972.

<별첨 1> 기본측정변수와 정밀측정변수

기본측정변수	정밀측정변수
1. 민주주의	1. 민주주의 이념 2. 민주화 3. 민주실서 4. 자유 민주주의 5. 민주 헌정 6. 민주 혁명 7. 민주 회복운동 8. 민주사회 9. 민주활동
2. 자유	1. 자유 2. 자유화의 요구 3. 학문의 자유 4. 표현의 자유 5. 종교자유 6. 취재보도의 자유
3. 통일	1. 통일 2. 민족통일 3. 국론통일 4. 조국통일 5. 안보
4. 독재	1. 독재 2. 독재 정치 3. 일인독재체제 4. 군부독재 5. 독재권력 6. 독재집단 7. 독재국가 8. 자유당 독재
5. 부정부패	1. 부정부패 2. 불법 3. 사회적 폐습 4. 절대 부패 5. 부패 특권
6. 혁명	1. 혁명 2. 반혁명적 세력 3. 민족혁명 4. 4.19학생혁명 5. 혁명열사
7. 정의	1. 정의 2. 사회정의 3. 시대적 정의
8. 투쟁	1. 투쟁 2. 구국투쟁 3. 민권투쟁 4. 민주투쟁 5. 쟁취 6. 반대투쟁

	7. 법적투쟁 8. 대 사회투쟁 9. 투사 10. 저항
9. 헌법	1. 헌정수호 2. 법치주의 3. 개헌 서명지지 4. 민주주의 헌법정신 5. 개헌 6. 삼선개헌 7. 위헌
10. 집권	1. 영구집권 2. 일인집권 3. 집권연장 4. 장기집권
11. 매관	1. 매관자본 2. 매관채벌 3. 매관적 대중문화 4. 매관적 반민족자본 5. 매수의교 6. 매국조인 7. 매관적 부패특권 8. 매관적 경제 9. 예속
12. 선거	1. 부정선거 2. 공명선거 3. 재선거 4. 민주선거 5. 무효화 6. 국민투표 7. 신임투표 8. 선거
13. 파쇼	1. 파쇼 2. 파쇼세력 3. 파쇼적 음모 4. 파쇼정치
14. 언론	1. 언론 2. 민주언론 3. 언론의 자유 4. 언론부재 5. 언론의 책임 6. 언론노조 7. 언론탄압 8. 자유언론
15. 민족	1. 조국운명 2. 민족자립 3. 민족민주이념 4. 반민주적 체제 5. 민족사적 소명 6. 민족적 위기

16. 인 권	1. 인 권 2. 인권침해 3. 인권유린 4. 인권탄압 5. 인권존중 6. 인권회복
17. 공산주의	1. 공산주의 2. 북괴도전 3. 송 공 4. 반 공
18. 애 국 심	1. 애국애족 2. 구국운동 3. 조국사랑 4. 민족구국선언
19. 경 제	1. 자립경제 2. 경제민주화 3. 경제발전 4. 국민경제파탄 5. 경제예속화 6. 독점자본
20. 노 동	1. 노동3권 2. 노동인권 3. 노동자권익쟁취 4. 민주적 노동운동 5. 합리적 임금
21. 시 위	1. 시 위 2. 평화적 시위 3. 학생시위
22. 평 등	1. 평 등 2. 호혜평등
23. 기 본 권	1. 기본적 인권보장 2. 인간의 존엄성 3. 기본적 생존권 4. 국민의 기본권 5. 인간의 기본권 6. 기본권 침해 7. 주 권 8. 권리회복
24. 외 부 의 간섭	1. 외부의 간섭배제 2. 외부의 간섭
25. 정 권 교 체	1. 정권교체 2. 평화적 정권교체
26. 단 결	1. 단 결 2. 국민단합
27. 학 원	1. 학원의 자유 2. 교육개정 3. 학원폐쇄 4. 진리탐구 5. 대학의 양심

	6. 학원의 민주화
28. 반 동	1. 반동정권 2. 반동세력 3. 반동재벌
29. 권 력	1. 권 력 2. 권 위 3. 권력만능 4. 공 권력 5. 관권개입 6. 국회기능의 회복
30. 진 리	1. 공명정대 2. 진 리 3. 도 덕 4. 양 심
31. 탄 압	1. 탄 압 2. 군국주의적 억압 3. 고 문 4. 억 압 5. 종교탄압 6. 착 취
32. 농 업	1. 농촌의 민주화 2. 농정부재 3. 농업정책
33. 한 일	1. 한일회담 2. 한일조인 3. 한일국교재개 4. 한일협정
34. 기 타	1. 현실참여 2. 식민주의적 침탈 3. 범 법 4. 질 서 5. 직접침략 6. 테 러 7. 처 벌 8. 왜 본국 9. 국론분열 10. 봉 쇄 11. 단 식 12. 군사 쿠데타 13. 군 정 14. 황색주의 15. 사법주의 독점 16. 사법부의 파동

〈별첨 2〉

설 문 지

본 조사는 대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이념교육의 발전방향을 찾기위한 학술적 연구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성공적 결실은 오직 여러분의 솔직하고 정성어린 응답에 달려 있어오며 모든 응답내용은 전산으로 통계처리되어 개인의 인적사항이 전혀 노출되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989. 6.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이 병 철

응답요령 : 해당사항에 하나만 O로 하시고 특별히 요청된 경우에는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1) 남자()
 - (2) 여자()
2. 지금 몇학년입니까?
 - (1) 1학년()
 - (2) 2학년()
 - (3) 3학년()
 - (4) 4학년()
3. 어느 계열을 전공하고 있습니까?
 - (1) 인문, 사회계열()
 - (2) 이공계열()
 - (3) 사범계열()
 - (4) 농림, 해양계열()
 - (5) 의약계열()
 - (6) 예체능계열()
4. 군필여부는?
 - (1) 군필()
 - (2) 미필()
 - (3) 기타()
5. 출신지역은?
 - (1) 서울·경기()
 - (2) 충청()
 - (3) 강원()
 - (4) 전라()
 - (5) 경상()
 - (6) 제주()
 - (7) 기타()
6. 귀하의 가정은 우리나라 전체생활수준에서 볼때 어느정도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아주 잘산다()
 - (2) 약간 잘산다()
 - (3) 보통이다()
 - (4) 약간 못산다()
 - (5) 아주 못산다()
7. 전체적으로 볼때 다음중 어느 이념체제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 (1) 자유민주주의제도()
 - (2) 공산사회주의제도()
 - (3) 혼합설총제도()
 - (4) 별로 차이없음()
8. 금후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은?
 - (1) 아주 높다()
 - (2) 약간 높다()
 - (3) 보통이다()
 - (4) 약간 낮다()
 - (5) 아주 낮다()
9. 남북한 중 어느쪽이 통일을 위해 더 적극적이라고 보십니까?
 - (1) 한국()
 - (2) 북한()
 - (3) 양쪽 모두 적극적임()
 - (4) 양쪽 모두 소극적임()
10.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씨클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 (1) 레크레이션 씨클()
 - (2) 교양씨클()
 - (3) 이념씨클()
 - (4) 사교씨클()
 - (5) 기타()
11. 제6공화국이후의 정국전개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현지도체제의 집권이 계속될 것이다()
 - (2) 여당내에서 정권승계가 가능할 것이다()
 - (3) 야당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 (4) 혁명, 정변에 의하여 현 정권이 위기에 처할 것이다()

12. 귀하는 교수와의 인간관계가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1) 아주 원만하다고 생각한다() (2) 어느정도 원만하다고 생각한다()
 (3) 원만치 않다() (4) 아주 원만치않고 불편하다()
13.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간섭이 심하다고 보십니까?
 (1) 아주 심하다() (2) 약간 심하다()
 (3) 심하지 않다() (4) 전혀 심하지 않다()
14. 현재의 한국을 권위적인 체제로 보십니까?
 (1) 확실히 그렇다() (2) 어느 정도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확실히 그렇지 않다()
15. 만약 권위적인 국가라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 형식적 민주주의(민중참여배제)() (2) 경제적 구조모순()
 (3) 군부정권의 집권() (4) 경제발전지상주의()
 (5) 유교 및 식민문화유산()
16. 남·북통일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 절대로 불가능하다() (2) 매우 어려울 것이다()
 (3) 조금 어려울 것이다() (4) 노력하면 이룰수 있을 것이다()
 (5) 머지않아 곧 이루어질 것이다()
17. 군의 정치관여정도는?
 (1) 전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2) 배제할수는 없으나 극소화시켜야 한다()
 (3) 위기시의 질서유지에는 참여할 수 있다()
 (4) 우리의 현실정를 고려할때 군이 정치에 개입해야 한다()
18. 한국의 당면위험요인은?
 (1) 북한의 위협() (2) 경제적 불안정() (3) 빈부격차() (4) 내부정치모순()
 (5) 가치관의 혼란() (6) 부정부패() (7) 강대국의 정치, 경제적 압력()
19. 6.25와 같은 전쟁이 재발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최전방에 참여하겠다() (2) 현재의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겠다()
 (3) 그때 가봐서 걱정하겠다() (4) 안전한 곳으로 피하겠다()
 (5) 어느 세제하에이나 현재대로 살겠다()
20. 남·북통일의 근본사해요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1) 사상체계의 대립() (2) 미·소·중·일의 이해관계대립()
 (3) 한국지도부의 무성의() (4) 북한지도부의 무성의()
 (5) 남북한 상호불신() (6) 남북한의 국내정치불안()
 (7) 남북한의 심화된 이질화()
21. 현재의 학생시위에 어느정도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1) 기꺼이 참여하고 싶다() (2) 어느정도 참여하고 싶다()
 (3) 참여하고 싶지 않다() (4)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
22. 대중운동이나 혁명은?
 (1) 체제가 바뀌어도 마찬가지로 전혀 불필요하다()
 (2) 국민은 통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하며 저항해서는 안된다()
 (3) 저항권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급진폭력방법은 거부되어야 한다()
 (4) 통치자가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지 못할때는 혁명적 방법도 가능할 수 있다()
 (5) 혁명은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23. 현재 사회일각에서 일고있는 노사분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1) 비인간적 처우와 낮은 임금() (2) 정치적 모순()
 (3)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
 (4) 노동자, 사용자간의 대화부족과 상호불신()
 (5) 외부세력의 선동탓()
24. 귀하의 의견으로는 우리나라 전체대학생의 몇 퍼센트(%)가 시위에 적극 가담하는 학생이라 생각하십니까?
 (1) 2%미만() (2) 3-5%() (3) 6-10%() (4) 11-15%()
 (5) 16-20%() (6) 21-25%() (7) 26-30%() (8) 31-35%()
 (9) 36%이상()

25. 남북한의 이질화는 어느정도 심화되어있다고 보십니까?
 (1) 통일에 의한 민족재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이질화가 심화되어있다()
 (2) 이념적, 체제적 차이에 의해 이질화는 어느정도 심화되었으나 시일이 흐르면서 동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이념이나 체제의 벽을 뛰어 넘어 동화될 수 있다()
 (4) 남북간의 이질화는 존재치않으며 단지 정치적 상징조작에 의한 허구적 관념이다()
26. 학생운동에서 주장하는 이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1) 전적으로 타당한 내용이다() (2) 어느정도 타당하다()
 (3) 약간 타당하지 못하다() (4) 매우 타당하지 못하다()
27. 현재 일고있는 노학연계투쟁을 어떻게 보십니까?
 (1) 학생이 선봉이되고 노동자들이 추가되는 투쟁전략전술로 극히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어느정도 연계상의 문제는 있으나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일음 긍정적인 면이 없는것은 아니나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4) 학생운동의 순수성을 상실할뿐 아니라 극한 투쟁양상을 유발하여 사회를 불안케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28. 편단체에 있어서 미군의 한국주둔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남침억제를 위해 미군주둔은 계속되어야 한다()
 (2) 한국군의 군사력이 북한군사력보다 우세해질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
 (3) 한국군의 군사력이 북한군사력과 동등해질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
 (4) 군사력등 여러관련사항을 고려하되 단계적으로 철수하여야 한다()
 (5) 통일에 방해가 되므로 당장 철수하여야 한다()
29. 학생운동에서 가장 크게 거론되는 쟁점은 다음중 어느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한 공산화() (2) 하층계급을 위한 사회건설()
 (3)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항거() (4) 반독재민주주의()
 (5) 군부의 정치참여배제() (6) 반외세민족자립()
 (7) 학교내의 문세점 개선() (8) 남북통일()
30. 통일이 된다면 그이후의 정치이념체제는 어떻게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자본주의체제이어야 한다() (2) 공산주의체제이어야 한다()
 (3) 자본주의중심의 혼합체제이어야 한다() (4) 공산주의중심의 혼합체제이어야 한다()
 (5) 새로운 정치이념체제로 공산주의체제외에는 어느체제이든 상관없다()
31. 단일 학생운동이 점점 과격해져간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운동권학생들의 오판 및 영웅심리때문()
 (2) 사회의 모순구조가 점점 악화되기때문()
 (3) 학생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않고 있기때문()
 (4) 학생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더욱 심해지기때문()
32. 현재 북한사회는 어느정도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세십니까?
 (1)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빈곤한 저개발개화사회()
 (2) 국방과 경제개발에 힘쓰는 개발도상국()
 (3) 경제적 여유가 다소 있는 인민복지를 고려하는 중진국()
 (4) 경제적으로 상위권의 발전된 선진공업국()
 (5) 잘 모르겠다()
33. 귀하의 앞으로 학생시위의 범위와 방법이 어떻게 변모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1) 매우 과격한 방향으로 확대될 것이다()
 (2) 다소 확대될 것이다() (3) 현상태로 지속될 것이다()
 (4) 온건한 방향으로 축소될 것이다() (5) 축소·쇠퇴할 것이다()
34. 오늘의 대학이 일부 운동권학생들에 의해 좌경화되고 있다고 하는 견해가 사회일각에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전적으로 동의한다() (2) 어느정도 동의한다()
 (3) 동의할 수 없다() (4)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35. 학생운동의 전망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36. 대학발전을 위한 제언을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별첨 3>

설 문 지

본 조사는 고등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념교육의 발전방향을 찾기위한 학술적 연구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성공적 결실은 오직 여러분의 솔직하고 정성어린 응답에 달려 있어오며 모든 응답내용은 전산으로 통계처리되어 개인의 인적사항이 전혀 노출되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989. 9.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이 병 철

응답요령 : 해당사항에 하나만 ○표 하시고 특별히 요청된 경우에는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2. 지금 몇학년입니까?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3. 귀하의 고교계열은?
(1) 인문계() (2) 실업계() (3) 기타()
4. 귀하의 출신지역은?
(1) 서울·경기() (2) 충청() (3) 강원() (4) 전라()
(5) 경상() (6) 제주() (7) 기타()
5. 귀하의 가정은 우리나라 전체생활수준에 비추어 볼때 어느정도 잘산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주 잘산다() (2) 약간 잘산다() (3) 보통이다()
(4) 약간 못사는 편이다() (5) 아주 못산다()
6. 전체적으로 볼때 다음중 어느이념체제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1) 자유민주주의체제() (2) 풍산사회주의체제()
(3) 혼합질층체제() (4) 별로 차이없음()
7. 금후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은?
(1) 아주 높다() (2) 약간 높다() (3) 보통이다()
(4) 약간 낮다() (5) 아주 낮다()
8. 남·북한 중 어느쪽이 통일을 위해 더 적극적이라고 보십니까?
(1) 한국() (2) 북한() (3) 양쪽 모두 적극적임()
(4) 양쪽 모두 소극적임()
9. 현재 사회일각에서 알고있는 민주화의 열기, 특히 「전교조」와 같은 교육자들의 민주화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주의주장이 신적으로 타당하므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2) 어느정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지한다()
(3) 주의주장이나 그 취지는 타당하나 방법적 문제에 있어 흠결이 있는듯하다()
(4) 주의주장에서나 방법적인 면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는듯하다()
(5) 주의주장이나 방법이 모두 부당하며 오히려 사회적 불안만 가중시킨다()
10. 제6공화국이후의 정국전개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현지도체제의 집권이 계속될 것이다()
(2) 여당내에서 정권승계가 가능할 것이다()

- (3) 야당의에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4) 혁명, 정변에 의하여 현정권이 위기에 처할 것이다()
11. 커리는 학교 선생님과의 인간관계가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1) 아주 원만() (2) 어느정도 원만() (3) 원만치 않음()
 (4) 아주 원만치 않고 불편()
12.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간섭이 심하다고 보십니까?
 (1) 아주 심하다() (2) 약간 심하다() (3) 심하지 않다()
 (4) 전혀 심하지 않다()
13. 현재의 한국을 권위적인 체제로 보십니까?
 (1) 확실히 그렇다() (2) 어느 정도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확실히 그렇지 않다()
14. 만약 권위적인 국가라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 형식적 민주주의(민중참여배제)() (2) 경제적 구조모순()
 (3) 군부정권의 집권() (4) 경제발전지상주의()
 (5) 유교 및 식민문화유산()
15. 남·북통일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 절대로 불가능() (2) 매우 어려울것임()
 (3) 조금 어려울것임() (4) 노력하면 이룰수 있음()
 (5) 머지 않아 곧 이루어질것임()
16. 군의 정치관여정도는?
 (1) 전적으로 배제() (2) 배제할수는 있으나 극소화()
 (3) 위기시의 질서유지에는 참여가능()
 (4) 우리의 현실정을 고려할때 군이 정치에 직접 개입해야함()
17. 한국의 당면위협요인은?
 (1) 북한의 위협() (2) 경제적 발전() (3) 빈부격차()
 (4) 내부정치모순() (5) 가치관의 혼란() (6) 부정부패()
 (7) 강대국의 정치, 경제적 압력()
18. 6.25와 같은 전쟁이 재발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최전방에 참여하겠다() (2) 현재의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겠다()
 (3) 그때 가봐서 결정하겠다() (4) 안전한 곳으로 피하겠다()
 (5) 어느 체제하에서나 현재대로 살겠다()
19. 남·북한 통일의 근본저해요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1) 사상체계의 대립() (2) 미·소·중·일의 이해관계대립()
 (3) 한국지도부의 무성의() (4) 북한지도부의 무성의()
 (5) 남북한 상호불신() (6) 남북한의 국내정치불안()
 (7) 남북한의 심화된 이질화()
20. 현재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학생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여건이 된다면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1) 학생시위는 반드시 필요하며 여건이 주어진다면 기꺼이 참여하고 싶다()
 (2) 학생시위는 필요하며 여건이 주어진다면 참여하고 싶다()
 (3) 학생시위의 필요성을 느끼나 참여하고 싶지는 않다()
 (4) 학생시위는 필요치 않으며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므로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
21. 대중운동이나 혁명은?
 (1) 체제가 바뀌어도 마찬가지로 전혀 불필요하다()
 (2) 국민은 통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하며 저항해서는 안된다()
 (3) 저항권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급진폭력방법은 거부되어야 한다()
 (4) 통치자가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지 못할때는 혁명적 방법도 가능할 수 있다()
 (5) 혁명은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22. 현재 사회일각에서 일고있는 노사분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1) 비인간적 처우와 낮은 임금() (2) 정치적 모순()
 (3)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
 (4) 노동자, 사용자간의 대화부족과 상호불신()
 (5) 외부세력의 선동탓()

23. 현재 일부고등학교에서도 전교조 문제등과 연관되어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등학생의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2)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3)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4)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24. 남북한의 이질화는 어느정도 심화되어있다고 보십니까?
 (1) 통일에 의한 민족재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이질화가 심화되어있다()
 (2) 이념적, 체제적 차이에 의해 이질화는 어느정도 심화되었으나 시일이 흐르면서 동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이념이나 체제의 벽을 뛰어 넘어 동화될 수 있다()
 (4) 남북한간의 이질화는 존재치 않으며 단지 정치적 상징조작에 의한 허구적 편견이다()
25. 대학생들이 학생운동에서 주장하는 이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1) 전적으로 타당한 내용이다() (2) 어느정도 타당하다()
 (3) 약간 타당하지 못하다() (4) 매우 타당하지 못하다()
26. 현재 일고있는 노학연계투쟁을 어떻게 보십니까?
 (1) 학생이 선봉이되고 노동자들이 추가되는 투쟁전략전술로 극히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어느정도 연계상의 문제는 있으나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일용 긍정적인 면이 없는것은 아니나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4) 학생운동의 순수성을 상실할뿐 아니라 극한 투쟁양상을 유발하여 사회를 불안케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27. 현단계에 있어서 미군의 한국주둔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남침억제를 위해 미군주둔은 계속되어야 한다()
 (2) 한국군의 군사력이 북한군사력보다 우세해질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
 (3) 한국군의 군사력이 북한군사력과 동등해질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
 (4) 군사력등 여러 관련상황을 고려하되 단계적으로 철수하여야 한다()
 (5) 통일에 방해가 되므로 당장 철수하여야 한다()
28. 대학생들이 학생운동에서 주장하는 쟁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한 공산화()
 (2) 하층계급을 위한 사회건설()
 (3)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항거()
 (4) 반독재민주주의() (5) 군부의 정치참여배제()
 (6) 반외세민족자립() (7) 학교내의 문제점 개선()
 (8) 남북통일()
29. 통일이 된다면 그이후의 정치이념체제는 어떻게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자본주의체제이어야 한다() (2) 공산주의체제이어야 한다()
 (3) 자본주의중심의 혼합체제이어야 한다()
 (4) 공산주의중심의 혼합체제이어야 한다()
 (5) 새로운 정치이념체제로 공산주의체제외에는 어느체제이든 상관없다()
30. 만일 학생운동이 점점 과격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운동권학생들의 오만 및 영웅심리때문()
 (2) 사회의 모순구조가 점점 악화되기때문()
 (3) 학생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않고 있기때문()
 (4) 학생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더욱 심해지기때문()
31. 현재 북한사회는 어느정도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1)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빈곤한 저개발패쇄사회()
 (2) 국방과 경제개발에 힘쓰는 개발도상국()
 (3) 경제적 여유가 다소 있는 인민복지를 고려하는 중진국()
 (4) 경제적으로 상위권의 발전된 선진공업국()
 (5) 잘 모르겠다()
32. 귀하는 앞으로 학생시위의 범위와 방법이 어떻게 변모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1) 매우 과격한 방향으로 확대될 것이다()
 (2) 다소 확대될 것이다() (3) 현상태로 지속될 것이다()
 (4) 온건한 방향으로 축소될 것이다() (5) 축소·쇠퇴할 것이다()

